Life p/14

송년회는 슬림 파티푸드로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20

연말 시상식 특별 무대는···

양들의 행진 "내년은 우리의 해" 2015년 을미년 양의 해를 사흘 앞둔 29일 오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한복을 차려 입은 양들이 관람객들과 행진하며 바짝 다가온 양의 해를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신저 시장 진입장벽 높았다

삼성 '챗온', 네이버 '라인' 카카오 철옹성 못넘어
내년에도 카톡·네이트온 양강구도 계속전망

대기업에도 카카오 열매의 맛은 쓰디 썼다. 굴지의 그룹사들이 메신저 시장에서 씁쓸한 결과를 거뒀다.

91.2% 대 0.3%. 시장조사기관 랭키닷컴의 29일 현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삼성 챗온의 업계 점유율이다. 2011년 10월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 흥행에 힘입어 야심차게 선보인 챗온은 시장 점유율 0.3%란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며 내년 2월 결말에 퇴장한다.

최근 삼성전자는 챗온 조기 종료에 대해 "서비스 축소가 아닌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 실패가 서비스 철회의 주원인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신저 성공의 핵심은 '네트워크 효과'다. 스마트폰은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골라도 메신저는 지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따라쓰게 된다"며 "삼성전자가 챗온을 경쟁사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며 마케팅했지만 스마트폰 판매량만큼 챗온 점유율이 안 올라간 것은 당연지사"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의장이 선보인 모바일 메신저 라인도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답보 상태다. 라인의 PC점유율은 1.6%, 모바일은 2.9%에 그쳤다.

챗온과 라인 사례처럼 메신저 업계에서 후발 주자의 진입 장벽은 무엇보다 높다. 하지만 선도 주자라고 늘 순탄한 것은 아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온이 대표적 사례다.

네이트온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부동의 PC 메신저 1위였다. SK컴즈는 문자 무료 서비스와 싸이월드 제휴로 한때 '직장인 메신저'란 별칭까지 얻었지만 이내 카카오톡PC버전에 왕좌를 내줘야 했다. 지난해 6월 첫선을 보인 카카오톡PC 버전은 출시 당시 점유율 2.6%였지만 현재는 47.4%까지 치솟았다. 네이트온은 점유율 41.4%로 2위에 주저 앉았다.

위협을 느낀 SK컴즈는 지난 여름 카카오톡에 대항하는 모바일 메신저 '네이트온 모바일 5.0'을 선보였지만 점유율 0.6%로 대세를 뒤집지 못했다. 당시 SK컴즈 사내 게시판에는 '모바일 메신저 대응이 너무 늦었다'란 의견이 들끓었다. 네이트온 점유율 하락과 싸이월드 부진 속에 SK컴즈는 결국 지난해 연말 대규모 구조조정을 벌여야 했다. SK컴즈의 한 퇴직 직원은 "IT시장은 속도가 중요한데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너무 느렸다. 모바일 시장을 안이하게 여긴 점도 패착"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에도 카카오톡과 네이트온의 양강 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SK컴즈는 네이트온은 부흥에 힘을 쏟으며 메신저 명성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SK컴즈 관계자는 "네이트온은의 직장인 이용률이 대단히 높다. 직장인 특화 서비스와 싸이메라 마케팅으로 수익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PC·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1위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사는 "카카오톡 성장은 PC와 모바일을 자유롭게 오가는 호환성이 있었다"며 "논란이 됐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내년 1분기 새로운 서비스를 대거 선보일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조현아, 모든 보직서 사퇴

정석인하학원 이사 물러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인하대 이사직도 사퇴하며 사실상 한진그룹과 관련된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29일 대한항공과 인하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이사직 사퇴서를 작성해 직접 서명한 뒤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같은 날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대한항공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과 다른 계열사 등의 지분은 계속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이날 국토교통부도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한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관련공무원을 문책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수희기자 kim@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우울한 경제지표, 새해엔 희망 있나

기자 수첩
김 민 지
<금융시장부 기자>

한국 경제의 '우울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해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경제지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내년 전망마저 더욱 비관적이다. 내년 경제 전망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둡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세계 경제 침체 등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사상 초유의 '4저 시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저 시대란 금리·물가·성장·투자 등 4대 경제지표가 동시에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성장 동력을 잃은 경제여건'을 뜻한다. 내년 최대 대외변수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유로존이 꼽히고 있다.

소비심리 역시 크게 위축돼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심리가 위축된 올해 5월(105)보다도 더 낮고, 지난해 9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저다.

이처럼 경제 환경이 어렵다 보니 창업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2013년 기준 기업생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74만9000개로, 전년보다 2.7%(2만1000개) 감소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그나마 희망을 가질 만한 것도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상당 수준 정치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은 대외적으로 경제 전망이 어두운 만큼 경제 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해다. 과거에는 중국 성장의 과실을 한국 기업이 누렸지만 이 고리는 이미 끊어졌다. 대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문제와 느려진 이익 성장의 속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도 위기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내년 1월 남북회담 갖자"

정부, 북한에 제의 · "이산가족 상봉 등 협의"

정부는 내년 1월 중 남북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며 "북측에 전통문을 보냈으며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통문은 류 장관 명의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앞으로 이날 오전 발송됐고 북측은 아직 수령했다. 정부는 북측이 대화에 호응하면 류 장관이 회담 수석대표를 맡는다는 계획이다.

류 장관은 "이 만남을 통해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통준위 정부 부위원장인 저나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기타 남북이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북측과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에서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류 장관은 "남북간에 서로 관심 있는 사안들은 다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이번에 제안한 회담과 고위급 접촉을 '투트랙'으로 함께 진행할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북측이 2차 고위급 접촉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나온다면 2차 고위급 접촉은 개최가 된다"며 "이번 회담은 당국 차원의 논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회담이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문재인 "당 대표 되면 총선 불출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2·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당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질 것을 결심했다. 저 문재인이 나서서 당의 변화와 단결을 이뤄내겠다.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피아 방지법' 내년 3월 31일 시행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 적폐 해소를 위해 개정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내년 3월 31일 전면 시행된다.

29일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 공포되어 내년 3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 의무자인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 심사를 받도록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 사기업체 등으로 한정됐던 취업 제한 기관도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업무 관련 기관, 민간이 규제업무와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취업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옛 통진당 '보조금 부정 지출' 의혹 실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회계보고를 받고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옛 통진당으로부터 영수증을 포함해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당사를 비롯한 현장 실사를 벌였다. 내달 2일까지 후원회의 모금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도 받아 정치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할 계획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상·시기 합의

●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대상 시기가 사실상 해외자원 개발 외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확정됐다.

여야는 29일 원내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원외교 국조의 대상 시기를 전원 이명박 정부 때로만 한정하자는 야당의 요구 대신 자원개발 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미·일, 北 정보공유 약정 발효

26일 서명 … 국방위서 '사후 보고' 질타

한국·미국·일본 3국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29일(한국시간) 체결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한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유 약정을 보고했다. 그러나 국방위에서는 국방부가 26일 이미 서명한 다음 국회에 뒤늦게 보고했다면서 '사후 보고' 논란이 제기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 업무현안보고에서 "정보공유 약정문 서명은 미국이 23일, 일본이 26일에 했으며 우리나라도 26일 오후에 했다"며 "절차상 시간이 필요해 (발효일은) 29일로 했다"고 말했다.

미측 실무자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문서를 가지고 3국을 돌면서 국방차관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26일 언론브리핑에서 백승주 차관이 29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서명하면서 이 약정이 발효된다고 밝힌 바 있어 서명 절차에 대한 설명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방위에서는 발효 날짜(29일)만 사전에 국방위에 보고하고 그 전에 서명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 사후 보고라는 질타가 있었다.

한민구 국방장관(노른쪽)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 보고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 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이 약정은 한미일이 공유하는 군사 비밀의 형태와 관련 "구두, 시각, 전자, 자기 또는 문서를 포함하는 어떤 형태로든 교환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현정기자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2년 → 4년

고용부, 종합대책 노사정위 보고… 3개월 이상 일하면 퇴직금

35세 이상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가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장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토록 하고 저 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의 기준과 절차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2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기간이 연장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받고,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된다.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현재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6개 직종 외에 신용카드·대출 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강한 3개 직종도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전국 최대 규모 5일장이 열리는 경기 성남 모란시장이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장날인 29일 휴장해 장터가 출입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모란시장 50년만에 장날 휴장

AI 확산 막기 위해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 조성 50년 만에 처음으로 장날인 29일 휴장했다.

모란가축상인회 측에 따르면 지난 27일 모란시장에서 판매하던 닭에서 고병원성 AI 발견돼 수도권 등지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장날인 이날부터 자발적인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상인들은 시장 안 판매업소에서 가금류 취급과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고 개·토끼 등의 가축 취급과 판매도 당국의 조치가 있거나 AI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 주요 출입구마다 29일 임시 휴장을 알리는 안내문구와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며 상점 앞에 내놓았던 가축류는 모두 치워졌다.

모란시장은 장날에는 10만여 명 인파가 몰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속 5일장이다.

/박은우기자 cyc.cne@

'부동산 3법' 본회의 통과

여야, 148건 처리… 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 완료도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포함해 총 14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간 추가 유예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노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도 이날 각각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고, 국조 요구서가 보고됨에 따라 최장 125일간의 활동이 사실상 개시됐다.

연금특위는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국조는 야당이 요구해왔던 전임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개발 외교 전반을 점검한다.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안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통과됐으며,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 중 조대환 권영빈 변호사 등 국회 몫으로 여야 추천 각 5명씩 총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김현우기자 cyclone@

부연 도심 – 미세먼지 비상!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부연 날씨가 이어진 29일 오후 경기 수원의 한 공원을 걷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길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에어아시아기 잔해 추정 물체 발견

호주 공군 수색기가 29일(현지시간) 에어아시아기가 실종된 자바해 수색 현장에서 이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인도네시아 공군 당국자는 "호주군의 P-3C 해상 초계기가 여객기 실종 지점에서 1120㎞ 떨어진 낭카섬 인근에서 실종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사고 여객기가 벨리통섬 근처에서 폭풍우를 피하려고 비다. 위 상공을 선회하다 심한 난기류를 겪고 추락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육지만 유숩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이날 수라바야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물체를 확인했으며 이 물체가 실종 여객기의 잔해라고 확인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기상 당국은 에어아시아기가 28일 실종될 당시 항로에 짙은 구름이 끼어 있었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 소속 QZ8501기의 항로에 짙은 구름이 싸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선미기자 seonmi@

서울 교원 79% "9시 등교 반대"

서울시내 교원 10명 중 8명은 9시 등교제에 반대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총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2~24일 온라인을 통해 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410명을 대상으로 9시 등교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2.9%(176명)가 '반대'를, 36.3%(149명)가 '매우 반대'를 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반면 '매우 찬성'을 응답한 교원은 1.2%(5명)에 그쳤고, '찬성'은 10.2%(42명)를 기록했다.

교원들은 학교별로 실시한 '우리학교 대토론회'에 참가한 학생, 학부모들 역시 9시 등교제에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학생의 찬반의견을 묻는 말에는 '반대'(207명)와 '매우 반대'(96명)가 303명으로 73.9%를 나타냈다.

반면 학생들이 9시 등교제에 대해 '매우 찬성' 아니 '찬성' 의견이라고 응답한 교원들은 15.4%(63명)에 그쳤다.

또 학부모의 찬반의견에 관한 질문에도 '반대'(220명)와 '매우 반대'(117명)가 337명으로 82.1%에 이르렀다.

/유주영기자

'성형외과 수술 중 생일파티' 조사

강남의 한 성형외과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곁에 두고 생일파티를 하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는 해당 성형외과를 실사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주영기자

metro HongKong

▲為照顧植物人母親，慧敏半年白頭。

照顧病母孝女白頭

感人 河南鄭州師範學院女生底慧敏 母親遇上交通意外成為植物人 19歲的她除了半工讀 還獨力照顧母親，每天為母擦身、

metro France

Un mort dans une aval massif du Mont-Blanc

FAIT DIVERS – Le corps d'un jeune alpiniste ... en Haute-Savoie. Un second ...

따뜻한 겨울 날씨로 눈사태

프랑스 오트 사보아 지역의 미르캉티드 빙벽 위로 눈사태가 일어나면서 한 명의 사망자와 한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최근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눈사태가 잡분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눈사태에 20대 남성이 사망했다. 그의 동료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눈사태의 피해를 입은 두 등산가는 오트 사보이 지역 출신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metro Brazil

리우올림픽 마스코트 '비니시우스와 톰'

2016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과 패럴림픽 마스코트 이름이 '비니시우스와 톰'으로 결정됐다. 리우 올림픽 위원회는 최근 마스코트 이름으로 '오바와 데바', '자바 투키와 에스킹킹', 그리고 '비니시우스와 톰' 세 가지 후보 가운데 '비니시우스와 톰'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비니시우스와 톰'은 브라질 보사 노바의 선구자 비니시우스 자 모라이스와 톰 조빔을 기리는 의미에서 사용됐다.

식물인간 어머니 돌보다 백발로

19세 효녀, 대학생활 즐거움 뒤로한 채 지극정성 병 간호 감동

식물인간인 어머니를 돌보다 열아홉 살의 나이에 백발이 된 소녀가 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는 동안 디후이민(底慧敏)은 어머니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정저우 사범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그는 창문이 없어 햇빛도 들지 않는 냄새 나는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매일 엄마를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그는 종종 어머니의 사고가 재연되는 꿈을 꿔 잠들기가 두렵다. 지난해 7월 고등학교에 다니던 디후이민은 보충 수업을 위해 어머니에게 책을 학교로 가져다 달라고 전화했다. 어머니 장펑(張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보니 어머니는 숨만 쉴 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의사는 살아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며 가족에게 치료를 포기할 것인지 물었다. 친척들은 모두 포기하라며 디후이민의 아버지를 설득했다. 하지만 부녀는 통곡하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후 디후이민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성적이 뚝 떨어졌다. 치료비를 대느라 집도 어려워졌다. 아버지 디강지오(底鋼)는 사방을 다니며 일을 했고, 디후이민도 대학교에 들어간 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버지를 돕고 있다. 어머니의 사고 후 디후이민의 머리는 하얗게 세어버렸다. 디후이민은 "나도 원래 까만 머리다. 한 상자에 2위안(약 350원)하는 염색약을 사서 쓰는데 며칠 못 간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의 사고 직후 고등학교 담임 교사와 친구들이 2만여 위안의 성금을 모아 수술을 할 수 있었고, 대학 입학할 때에는 교육재단에서 장학금 1만 위안을 받았다.

디후이민은 졸업 후 개인 사업을 할 계획이다.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그는 농산물 재배·음식과 관련된 창업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2014-й: нефт

유가 하락·경기 침체 2014 올해의 키워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끝을 보이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메트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의 키워드를 정리했다.

◆ 러시아판 EU

지난 5월 29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정상이 옛소련 지역의 경제통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출범에 합의했다. 이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이 합류했고 EEU는 내년 1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 유가 하락

국제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의 규정비가 폭락했다. 미국이 셰일가스 공급을 늘린 것과 유럽 지역의 불경기도 유가 하락을 부추겼다.

◆ 소치 올림픽

러시아 정부는 소치 올림픽 개최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드미트리 코작 러시아 부총리는 소치 올림픽의 순수익이 8억 달러(약 8800억원)가 넘는다고 밝혔다.

◆ 경기 침체

러시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유가하락 루블화 폭락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에는 물건 사재기를 하거나 은행 예금을 되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스베트라나 타라센코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인성과 실력, 나눔 실천하는 학생 키운다"

사람이야기

■이영희 경민대 입학취업처장

사람을 키우는 학교. 경민대학교는 인성과 능력을 모두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다. 이 학교에서 20여년간 근무해 온 이영희 경민대학교 입학취업처장은 "우리 학교에 처음 왔을 때 기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육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라는 설립이념이다"라고 말했다. 경민대학교 설립자인 홍우준 선생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잘하는 것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런 설립이념 아래 경민대학교는 학생의 인성을 바르게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효충', 즉 효(孝)와 충(忠)이 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게 공경심을 갖고 나라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영희 처장은 "경민대에서는 삼일절과 광복절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에 나와 기념행사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삼일절과 광복절의 정신이 젊은 세대에게 잊혀지고 있지만 이를 학생들에게 계승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민대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2박3일 동안 학교에서 숙식하며 '효충 인성교육'을 받는다. 또 30시간의 봉사시간이 졸업 필수요건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헌혈에서부터 재능기부까지 다양한 종류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학과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봉사 기회를 마련해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기초가 시비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기업에 어떤 인재를 원했냐 물어보면 '바른 인성'이라고 답한다. 우리 학교는 섬김, 모심, 배움, 나눔을 모토로 부모님께 나라를 섬기고 모시며 그 다음 실력을 채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을 키우고자 한다."

경민대학교 정문인 '독립문'과 행정관 '효행관'의 모습. /경민대학교 제공

◆넓은 세상 향한 지원 아끼지 않아

경민대는 '먼저 사람이 된 후 학문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인성을 기본으로 갖추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문·기술을 연마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취업과 진로', '진로설계와 취업전략'이라는 교과목들도 운영한다. 특히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처장은 "창업보육센터는 원래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재학생을 선발해 창업에 대한 기본 자세를 키워주기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며 "학생들은 창업보육센터 내에 회의실을 갖게 되며 기자재·회의비 등을 학교로부터 지원 받는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각 창업동아리를 회사처럼 간주하며 대표, 마케팅 담당 이사 등 직함도 정해 활동한다. 또 센터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 대표들과 연계해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 처장은 "이것이 취업으로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학생들이 꼭 창업으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며 "지금 배우는 것들이 앞으로 유능한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학하는 동안 현실감각을 익히고 면역력을 키운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처장은 '접근성'과 '장학금 제도'를 경민대학교의 장점으로 꼽았다. 경민대학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어 서울에서 가깝고 교통이 좋다. 1·7호선 도봉산역에서 무료 셔틀을 운행하고 있으며 일산 방면에서도 소정의 요금은 받는 통학버스를 운영해 편리하다.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 설립이념에 충실한 학생,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튜터로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처장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이 돼서까지 공부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요즈음 학생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좁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좋은 직업이 많은데 창의적 생각, 열정을 썩히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 젊으니까 뭐든 해볼 수 있지 않나.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정혜란 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수동적 독서교육은 가라

'책따세와 함께하는 교사연수' 내년 1월 13~15일

독서 중심의 독서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독서 교육의 장을 교사들이 자발적 재능기부로 열고 있다.

현직 교사들의 독서지도 모임인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하 책따세)'과 서강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책따세와 함께하는 교사 연수'가 내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강대에서 열린다.

열 번째를 맞이한 이번 연수는 '책 쓰기'를 주제로 독서 지도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한 주제를 정해 책을 쓰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교육과 실습을 진행한다. 직접 책을 쓴 본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책쓰기 교육을 실천한 선생님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책쓰기 관련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수 첫째날(13일)에는 '교사의 책 쓰기1', '책 쓰기 지도1' 강의가 준비돼 있다. 오전에는 책따세 운영진인 정용숙('내 맘대로 유럽 여행' 저자) 김미경('사꽃 이야기꽃' 저자) 교사가 자신의 출판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는 과정을 설명한다. 오후에는 책따세 운영진인 홍승강(서울 한일고 국어과) 교사가 기획부터 전자책 출판, 그리고 저작권 기부에 이르기까지 책 쓰기 교육과정을 상세히 안내한다. 학교 현장에서 실천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독서 지도를 넘어서는 책 쓰기 지도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지도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날(14일)에는 '책 쓰기 지도2', '책 쓰기 지도3' 강의를 마련했다. 오전에는 책따세 운영진인 조영수(서울 창문여중 국어과) 교사가 그림책을 활용한 책 쓰기 지도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책을 활용해 책 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주고, 자신이 쓰고 싶은 책의 주제를 찾아 책을 쓰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오후에는 이수정(경기 양일고 국어과) 교사가 진로 탐색을 돕는 책 쓰기 지도 방법을 소개한다. 진로가 비슷한 고등학생들이 팀을 이뤄 자신의 희망 진로 분야에서 주제를 찾아 책을 쓰게 함으로써 꿈을 찾아가게 만드는 지도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서강대에서 '책따세와 함께하는 교사 연수'가 열리고 있다. /책따세 제공

마지막 날(15일)에는 '책 쓰기 지도4', '교사의 책 쓰기2' 강의가 예정돼 있다. 오전에는 책따세 운영진인 류수경(서울 선일중 수학과) 교사가 교과의 특성을 살린 책 쓰기 지도 사례를 들려준다. 수학과의 특성을 살려 책 쓰기 교육 사례를 통해 다양한 교과에서 책 쓰기 지도를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이다. 오후에는 책따세 운영진인 허병두(서울 숭문고 국어과) 교사가 연수 과정을 토대로 책 쓰기 기획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 강의에서 과제로 작성한 연수생의 책 쓰기 기획안을 살펴보면서 책 쓰기 교육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 인원은 선착순 60명이고, 강의료는 중식, 자료집 등을 포함해 10만원이다. 연수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책따세 홈페이지(http://www.readread.or.kr)를 참조하거나 책따세 사무국(02-3274-1212)에 문의하면 된다.

허병두 교사는 29일 "기존 독서 방법의 한계가 수동적 독서로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책따세를 통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하고, 적성 등을 고려해 기본적인 책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영 기자

market index (29일)

코스피	1927.86	(-20.30)
코스닥	539.22	(+4.05)
금리	2.13	(-0.03)
환율	1097.80	(-1.40)

뉴스&뉴스

국순당 '르플랑 지타' 와인

국순당은 16일 전 했기며 국제 카레이싱 챔피언십 티크 빅르미씨가 만든 프랑스 와인 '르플랑 지타(GT)'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선보였다. /연합뉴스

올해 총 광고비 1.6% 성장

올해 우리나라 총 광고비가 10조 972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 '2014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총 광고비는 10조9722억원으로 전년(10조7959억원)에 비해 1.6% 증가했다. 모바일 광고시장은 지난해 4757억원에서 올해 7250억원으로 52.4% 상승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스마트광고는 3조 2938억원으로 전년(2조9600억원) 대비 11.3% 성장했다. /이제원기자

'이봐, 해봤어' 정주영 전기 발간

전경련의 출판 자회사 FKI미디어가 고 정주영 회장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이봐, 해봤어-세기의 도전자, 위기의 승부사 정주영'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경제사를 바꿔놓은 프론티어 정주영 회장의 중요 업적, 그리고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비화들을 저자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구성, 생생한 스토리로 풀어내고 있다.

2015년은 고 정주영 회장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박상훈기자 ze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자하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택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4
독자센터	02)721-9891

2006년 1월 24일 창간 일간신문 서울특별시 가00069

"통신사 하청업체, 개인정보 불법유통"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재벌가 총수 가석방 반대"

이남신(왼쪽서 세 번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의 하청업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불법 수집·보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하청업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불법 수집·보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와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보관한 하청업체들을 원청(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이나 서서 계약 해지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라"고 역설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강북홈고객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인화브로드밴드는 상품을 해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창고에 무더기로 보관하면서 불법 마케팅에 사용했다. 이 하청업계에서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SK브로드밴드의 전산확인을 출력해 보관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SK브로드밴드가 홈고객센터 개통 및 고객서비스 담당 기사들에게 고객들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를 반드시 받으라고 강요, 이를 기사 실적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북부산센터와 서부산센터를 위탁운영하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 이름으로 LG유플러스 모바일 가입자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직원휴게실에 보안장치도 없이 보관해왔다.

참여연대는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얼마든지 불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향후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으로 해당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감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통신업계 관행으로 굳어진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 기사들의 간접고용 구조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와 법무부장관 등에 의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사면 또는 가석방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벌 오너 일가들의 횡포와 특권, 불법적인 슈퍼 갑질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 이런 논의가 제기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재벌대기업 총수를 염두에 둔 기업인 가석방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현기자 ljy0403@metroseoul.co.kr

기장 비싼 오피스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오피스텔들이 국세청 기준시가 1~3위를 휩쓸었다. 국세청이 29일 고시한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의 오피스텔 기준시가에서 상위권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에 몰려 있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둘러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당 489만1000원)인 청담동 피엔폴루스. /연합뉴스

전국 평균 휘발유값 1500원대

5년7개월 만에 최저…1300원대도 속속 등장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이 5년7개월 만에 ℓ당 1500원대에 진입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는 29일 오전 전국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599.95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동결 결정을 발표한 뒤 한 달만에 100원 넘게 내린 셈이다.

국내 휘발유값 평균이 ℓ당 1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9년 5월 1542원 이후 처음이다. 1997년 외환위기 전 700~800원대였던 휘발유 값은 1998년 1160원대로 껑충 올랐고 2005년 1400원대, 2010년 1700원대 등 상승세를 이어간 뒤 2012년 4월 2058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1900원대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서 올해 1월 1800원대, 10월 1700원대로 내려왔다.

현재 1400원대 주유소는 서울 23곳을 포함해 전국에 500곳을 넘었다. 특히 경북 구미의 부경셀프주유소는 ℓ당 1365원, 충북 음성의 상평주유소가 1375원에 파는 등 1300원대 주유소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9일 오전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66달러(1.21%) 상승한 55.39달러로 거래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주 국제유가가 미국 경기지표 개선, 리비아 일부 지역 석유생산 저점 등으로 일시적인 보합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하락분이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는 중이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하락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준기자 mdkim@

내년 1인당 GDP 3만 달러 세계 순위는 한동안 제자리

내년에는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를 달성해 '선진국 클럽'에 가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 경제 성장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2만 8738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세계 주요 35개국 중 25위에 해당된다. IMF는 내년에는 1인당 GDP가 3만807달러로 오르면서 세계 주요국 중 24위로 한단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만8000달러 안팎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2만6205달러보다 1800달러(6.8%) 정도 늘어난 수치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평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인다면 3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후 전망은 밝지 않다. IMF는 1인당 GDP 연도별 전망치를 2016년 3만2857달러, 2017년 3만5356달러로 제시했다. 세계 순위는 내년부터 3년 연속 24위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비슷한 순위의 다른 나라들도 한국 정도의 성장은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 고도화를 이뤄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발주자인 한국의 순위 정체는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징후라는 지적이다.

/이국헌기자 kim@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우리은행 '이광구號' 본격 출범

오늘 취임 "순이익 2년 동안 1조5천억까지" … 민영화 달성·경쟁력 제고 '시동'

우리은행에 '이광구호(號)'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0일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광구(57·사진) 차기 행장 선임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제49대 우리은행장에 이름을 올리는 이 차기 행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과 간담회를 갖고 수익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 민영화 문제 해결 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전망이다.

이 차기 행장은 카드전략팀과 개인영업전략부, 홍콩지점장 등을 거치며 은행 전반에 업무 경험이 많고 강한 추진력을 가진 '영업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조직역량 집중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와 성공적인 민영화 달성을 위해 영업력이 뛰어난 임직원을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4차례나 실패로 돌아간 민영화와 서금회(서강대 금융인모임) 등으로 어수선했던 조직을 정비하고 내년 영업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부행장으로 승진한 김종원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행장과 김옥정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 이동빈 여신지원본부 부행장은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꼽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체제 하에서 조직역량 집중을 통해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민영화 달성을 추진코자 인사를 단행했다"며 "후속인사를 연말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도 시작과 함께 전 직원이 우리나라 1등은행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자산규모도 올해보다 15조원 정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차기 행장은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층면접에서 "현재 275조원인 자산을 매년 15조원씩 늘려 3년 안에 300조원을 달성하고, 1조원에 못미치던 연래 순이익을 임기 2년 동안 1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실적으로 증명해온 것처럼 영업통의 장점을 살려 우리은행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민영화를 성공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본부 부서를 현재보다 7개 줄이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다. 이에 따라 스마트금융사업단 내 전자뱅킹사업부는 스마트채널전략부와 통합되며 트레이딩부는 증권운용부와 합친다. WM(자산관리)사업단 내 제휴상품부는 WM전략부와 합쳐 자산관리 부서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금융사업단 내에 핀테크(Fintech)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도 발맞출 예정이다.

수익을 제고 차원에서는 지점을 소폭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년 초까지 400명 가량의 희망퇴직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임일성 신한증권 연구원은 "내년과 2016년 우리은행의 순이익은 각각 1조300억원, 1조1400억원으로 전망된다"며 "기대했던 민영화는 실패했지만, 펀더멘털은 양호한 상태로 순이자마진 안정과 높은 배당수익률, 낮은 밸류에이션 등은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손준범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 의지는 여전하다"며 "향후 관건은 투입된 공적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은행 임원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자회사 사장단 인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의 자회사는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 우리FIS, 우리PE 등 7개로, 계열사 사장단 인사는 우리은행장 취임과 함께 할 전망이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 대표들은 강원 우리카드 사장과 설상일 우리종합금융 사장, 김종완 우리FIS 사장 등이다.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허종희 우리신용정보 사장, 이경희 우리펀드서비스 사장, 최은옥 우리PE 사장 등은 내년 3월 이내에 임기가 종료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국민은행, 그룹·본부제로 개편

11그룹 9본부 59부 1실

KB국민은행은 29일 고객니즈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17본부 58부 2실이었던 조직은 11그룹 9본부 59부 1실로 바뀐다.

특히 그룹과 본부제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업과 고객중심의 영업지원 기능으로 본부를 개편했다. 영업점은 고객과 영업에 집중하고, 본부는 영업을 지원하는 조직 체제가 구축되는 구조다.

또 미래성장사업에 대한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SME·소호(SOHO)와 웰스 매니지먼트(WM), 은퇴시장, 글로벌 사업, 자본시장 등 전략적 육성부문의 조직확대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은 단기적으로 리테일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SME SOHO와 WM, CIB의 유가증권 운용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효율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선 기획기능에 해당하는 전략과 재무를 통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경영전략 실행과 CEO 경영철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고객 신뢰회복과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객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을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 중장기 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직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백아란기자

기술금융 우수기업 현장 방문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이 29일 기술금융 실적이 뛰어난 성남하이테크지점과 기술력 우수기업인 나우주를 방문했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권 행장은 기술금융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왼쪽부터) 장대혁 나우주 회장과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KB생명, LIG손보 인수로 재도약 노린다

1만명 이상 설계사 활용 시너지 효과 기대

금융위원회가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를 승인하면서 계열사인 KB생명이 재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다.

방카슈랑스 등 기존 은행 판매채널 외에도 1만명 이상의 LIG손보 설계사 대면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4일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를 승인했다. KB금융이 지난 8월 신청서를 낸 지 4개월 만이다.

금융위의 승인에 따라 KB금융은 LIG손보를 'KB손보(가칭)'로 변경작업을 거쳐 내년 초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KB금융이 업계 4위의 대형 손보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계열사인 KB생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그간 은행을 통한 방카슈랑스 외에 1만명 이상의 LIG손보 설계사들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설계사 등 대면채널은 생보업계 전체 수입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공략하지 않으면 외시 성장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생명보험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KB생명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124억8100만원으로 전체의 57.2%에 달했다. 반면 이 기간 전속설계사를 통한 초회보험료는 23억6000만원으로 10.5%에 불과하다. 전속설계사 수도 453명에 불과해 BNP파리바카디프,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 설계사 채널이 없는 생보사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숫자다.

반면 LIG손보는 지난 8월 말까지 설계사 채널을 통한 원수보험료는 1조4406억1100만원으로 삼성·동부화재와 현대해상에 이어 업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속설계사 수도 1만6439명에 달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손보설계사는 하나의 생보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KB생명은 앞으로 LIG손보 설계사를 활용한 교차판매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IG손보 설계사는 자사의 자동차보험과 KB생명의 연금보험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어, 고객에게 보장성 상품과 재무설계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김현석기자 khs840@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최선"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4대 핵심전략 10개 과제 발표

김원규(사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히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증권사로서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으로 출범한 국내 최대 규모의 NH투자증권은 앞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며 중장기 성장을 위한 4대 핵심전략과 10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증권업종의 수익이 악화된 가장 큰 원인이 고객의 신뢰 저하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새로운 WM(자산관리) 모델인 'WM 2.0'을 선보였다.

이는 개인과 기관, 세부 니즈까지 파악해 자산관리 모델을 4가지로 나눈 것이다.

김 사장은 "그동안 기관투자가에만 집중되던 리서치와 자산 배분 전략을 앞으로 개인 고객에게도 서비스할 계획"이라며 "고객이 기꺼이 수수료를 지불할 만한 부가가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 수익에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 유망상품 추천에 그치던 기존 WM 전략에서 탈피해 전 세계 주식과 채권, 현금, 대체투자 등을 추천하는 리서치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로 강화했다"며 "이를 위해 자산배분 R&D 조직을 운영하고 상품전략과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CIO(자산배분전략 담당 임원) 제도도 도입한다"고 말했다.

기관 영업 부문에선 기관고객(IC) 사업부를 신설한다.

NH투자증권은 투자은행(IB) 사업부문에서는 마진이 높은 맞춤형 기업금융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자기자본 투자를 늘리고 사모주식펀드(PEF)의 위상을 높여 자문과 인수금융, 기업공개(IPO), 대량매매(블록딜) 투자자 모집 등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라임 뱅커(Prime Banker)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나머지 4대 핵심전략으로 압도적 흥행의 경쟁력 구축, 신성장 동력 확보, 범농협 시너지 창출 등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10개 과제로는 ▲고객 관점의 사업재편 ▲자산관리 R&D 기능 강화 ▲제년 및 영업제도 혁신 ▲금융상품 개발 사업 육성 ▲IC 사업부 신설 ▲기업금융 확대 ▲해외거점 운영 혁신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성 확보 ▲ETP 시장 주도 ▲헤지펀드 사업 확대 등을 언급했다.

김 사장은 농협그룹 차원의 WM 사업 확대를 위해 서울 강남과 도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은행 중심의 복합점포 운영을 증권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한 통합증권사로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 42조6021억원, 직원 3415명 수준의 초대형 증권사로 탈바꿈했다. 국내 지점 83개, 국내 영업소 2개, 해외 현지법인 8개, 해외 사무소 1개 등을 거느리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서태종씨

금융위, 오늘 임시회의… 후속인사 속도낼 듯

서태종(50·사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감독원의 수석부원장에 내정됐다. 이에따라 부원장급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초 금감원의 후속 인사·조직개편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30일 임시 회의를 열고 금감원 부원장 선임과 산하기관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 임명은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서 상임위원을 비롯한 금감원 부원장 후보 3명에 대한 인사검증이 마무리됐다.

서 위원이 내정된 금감원 수석부원장 자리는 기획·경영지원과 업무총괄, 보험 등을 총괄하는 원내 2인자 자리다.

서 내정자는 전남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로 재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이어 주 OECD대표부 참사관, 금융위 기획조정관, 자본시장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으로는 현재 은행·비은행 검사를 맡은 박세춘 부원장보가 맡게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는 이동엽 금융투자검사 검사 담당 부원장보가 승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원장보 이하의 경우 금감원장의 인사 사항인 만큼 후속 인사와 조직 개편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신규 임용자에 대한 검증 절차가 남아 있어 8명의 부원장보에 대한 후속 인사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이나 늦어도 2월 초에 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부원장 3명이 모두 교체된 데다 진웅섭(55)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의 연배가 50대 초중반으로 내려온 만큼 인사 폭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감원 예산도 예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인력 증원 등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산을 10% 이상 증액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으며, 상호금융 검사 부문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삼성화재, 송재림·정유미·김창완 편 TV광고

'12월의 봄'으로 관심을 받은 삼성화재가 4인4색 TV광고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따뜻한 '봄'을 닮은 보험이 되겠다는 삼성화재의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당신의 봄'의 이번 광고는 고객을 '제대로 보고 꼼꼼히 보고 앞서 보겠다'는 자세를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삼성화재의 후속 TV CF에서 자녀편에 이어 공개된 인물은 송재림, 정유미, 김창완이다.

'제대로 봄' 편의 송재림은 겉 모습뿐만 아니라 숨겨진 모습까지 보여준다며 웃음을 자아냈고, 사랑스러운 그녀 정유미는 '꼼꼼히 봄' 편에서 천진난만한 미소로 봄 날의 따사함을 느끼게 한다.

김창완은 '앞서 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중장년층의 모습을 경쾌하게 풀어낸다.

최경이 삼성화재 브랜드전략파트장은 "좋은 보험은 세상의 모든 불안함에 맞서 보다 밝은 오늘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광고를 통해 '당신의 봄'이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광고는 TV, 라디오를 비롯해 회사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김형석 기자

저축銀·PE 사장에 김영표·김종규씨

신한금융 인사… 이신기 부사장 연임

신한금융지주는 29일 이사회와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를 열고 그룹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2년 임기가 끝나는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으며 지주에서는 1년 임기 마무리를 앞둔 이신기 부사장이 연임됐다.

이번 임원 인사는 일관적인 경영 추진을 위한 연임과 본부장급이던 준법감시인의 위상이 격상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대상자 15명 중 7명이 승진·연임됐으며 8명이 신규로 선임됐다.

자회사별로는 신한은행의 임영진, 이동환 부행장이 연임됐다. 또 임영석, 서현주 부행장보가 부행장으로 승진했으며 허순석, 이기준, 유동욱 본부장은 신임 부행장보로 승진 내정됐다.

조용병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김영표 신한저축은행 신임 사장, 이신기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배기봉 신한생명 신임 부사장 (왼쪽부터)

이로써 신한금융의 부행장·부행장보 자리는 기존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다.

신한금융투자 신임 부사장에는 김봉수 본부장이, 신한생명 신임 부사장에는 배기봉 신한은행 본부장이 각각 승진 내정됐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고석진 부사장은 연임하며 신한데이타시스템 신임 부사장에는 박정일 본부장이 승진 내정됐다. 이밖에 신한저축은행 신임 사장에는 김영표 신한은행 부행장이, 신한PE 신임 사장에는 김종규 신한PE 운용담당 전무가 각각 내정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번 인사는 성과와 역량 중심에 기반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를 신임 경영진으로 적극적으로 발탁했다"며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경영진은 유임해 저성장 금융환경 아래에서 그룹 전략의 일관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내정된 임원들은 각 자회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hjy0333@

'피파 온라인3' 2002년 전설들

축구발전기금 1억 쾌척

인기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3'가 축구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넥슨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3'의 '2002 전설 프로젝트' 일환으로 축구발전기금 1억원을 경기 중 사고로 다친 선수들에게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금은 한국 OB 축구회와 한국축구인노동조합에 각각 3000만원씩, 투병 중인 신용록과 이재호씨에게 각각 2000만원씩 전달됐다.

2002 전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홍명보 전 감독은 "게임 콘텐츠를 넘어 한국 축구를 위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해준 넥슨에 감사 드린다"며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넥슨 본부장은 "한국 축구에 전설적 업적을 남긴 인물들과 기부를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재미와 가치를 담은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호기자 unique@

사업하려면 제주로 가라?

제주도 제외 전 지역 BSI 저조
대기업·내수기업 전망 부정적

내년 초 제주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경기가 나쁠 것으로 관측됐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시장 상황이 나쁠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2377개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3'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3년 2분기 이후 최저치다. 기업체감경기를 뜻하는 BSI는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대한상의 경제분과 자문위원)도 "내년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로존 장기침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면서 경제환경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의 낙폭이 중소기업보다 컸다. 대기업의 BSI 전망치는 '81'로 전분기보다 19포인트 떨어졌고 중소기업은 '87'로 1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형태별로는 내수기업이 수출기업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쁠 것으로 보인다. 내수기업은 16포인트 하락한 '81'을 기록했고 수출기업은 6포인트 하락한 '87'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권(104)이 전분기보다 2포인트 상승하면서 3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넘었다. 반면 대구·경북이 '70'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권(77), 충청권(80), 수도권(83), 강원권(85), 동남권(93)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대한상의는 "제주권은 유입인구의 증가,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면서 상승했다"며 "반면 대구경북은 주요산업인 IT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고 호남권도 주요산업인 석유화학이 유가하락으로 정체하진 축소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내년 1분기 기업경영 애로요인으로 '내수 수출 등 수요부진'(48.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환율불안'(18.9%), '자금난'(16.2%), '인력난'(7.8%) 등을 지적했다.

정부에 바라는 과제로는 '경기활성화'(50.0%), '자금난 해소 지원'(22.1%), '규제완화'(9.6%), '환리스크 관리 지원'(9.5%), '인력난 해소 지원'(7.5%)을 차례로 꼽았다.

/박상훈기자 pan@metroseoul.co.kr

해외로밍 20년, 국경이 사라진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진보로 이동통신 간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그대로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로밍 서비스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는 1996년 7월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국제 로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제 로밍 서비스는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의 상호 협정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경우 통신기술과 주파수대역이 달라 호환이 안돼 로밍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초창기엔 해당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대여해 주는 임대로밍 형태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처럼 자신이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로밍 시대는 1999년 본격화됐다. 당시 SK텔레콤은 홍콩 자동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음성·문자메시지에 이어 2012년 LTE 자동로밍 서비스 시대를 열고 있다. 그야말로 음성, 문자, 데이터 모두 국경이 사라진 게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셈이다.

로밍 서비스 요금 역시 서비스 초기에 비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 요금제 역시 다양해졌으며 서비스 제공 국가는 수백개에 달한다.

현재 SK텔레콤은 로밍 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입형 할인 요금제인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OnePass)'의 서비스 국가를 138개국으로 확대했다.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 요금제는 하루 9000원에 주요 국가에서 데이터로밍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LTE 로밍 서비스 제공국가도 32개국 43개 사업자에 달한다.

KT는 음성로밍 230개국, 데이터로밍 150개국, LTE로밍 23개국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하루 2000원에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 자동로밍 서비스도 인기다. KT는 일본·중국 등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무제한 데이터와 음성, 문자 요금을 할인하는 스마트 로밍요금제 2종(스마트 로밍음성, 스마트 로밍 패키지)을 38개 국가에서 제공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이용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등 9개국에 LTE 데이터 로밍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영기자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택사인' KT는 BC카드, 지급결제 인증전문업체 브이피(VP)와 손잡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택사인'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KT 제공

유료방송 '합산규제' 또다시 불발

야당 반발에 클라우드 발전법도 처리 연기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합산규제 조항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내년 임시국회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합산규제 법안은 KT가 스카이라이프를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IPTV와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KT가 IPTV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내놓으면서 문제가 됐다. 유료방송업계에서 OTS 역시 IPTV와 다를 게 없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됐다면 KT는 향후 가입자 유치에 있어 발목을 잡힐 수 있었다. 이미 전체 유료방송 중 시장점유율 28%를 넘어선 상황에서 규제범위인 3분의 1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해를 넘기게 되면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또다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합산규제 통과를 간절히 바라던 반KT(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진영은 다급하게 됐다. 이들은 KT가 내년 임시국회 전까지 규제범위인 3분의 1을 넘기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엄연히 방송법과 IPTV법에 명시돼있는 가입자 점유율규제 취지를 감안하면 규제미비는 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계속 법 개정이 지연된다면 KT 특혜 유지로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꼽아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한 클라우드 발전법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 처리가 연기됐다. /이재영기자 ljy403@

정부3.0

청춘을 응원하는 당신의 기부, 기분좋은 보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과 희망의
자유로운 날개를 접은 대학생들
당신의 기부가 그들의 희망날개가 되어
사회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에 참여하세요!

기부 활동 분야 기부장학사업,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건립 지원 등

기부절차

① 약정하기
- 온라인 기부
  ARS소액기부, 전화약정
  우편/팩스/이메일약정

② 납부하기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방문납부 등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기타 자산 기부시 방문 및 전화 상담

③ 확인증 발급

기부방법

① 온라인 기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② 전화약정 (개인기부) 02-2259-2028, 2021 (법인기부) 02-2259-2621, 2622

③ 팩스/이메일/우편 약정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한 후 제출
- 팩스 02-2259-2159 · 이메일 gift@kosaf.go.kr
- 우편주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6층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부 기부금 담당자

④ 무통장 입금
- 신한은행 100-025-420820 · 기업은행 037-076308-01-146 · 우리은행 1005-601-531623
- 외환은행 630-006641-710 · 하나은행 175-910011-87604 (예금주 : 한국장학재단)

⑤ ARS 소액기부 060-700-1003 (한 통에 2천원)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2011년 7월 지정)

이사장 도전완

VIP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선택 '자부'

시승기

기아 K9 5.0 퀀텀

정숙하면서 부드러워 디자인 완성도도 최고

최고급 세단을 자처하는 차들은 많지만 인정받는 차는 드물다.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내놓은 페이톤이 미국에서 판매 중단에 들어간 것이 좋은 사례다.

기아차는 2012년 K9을 선보인 후 'K900'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진출했으며 몇 차례 손을 봤다. 소비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완벽한 차로 거듭나기 위해서였다. 최근 등장한 '더 뉴(The New) K9'은 외관부터 달라졌다. 우선 에스턴 마틴의 것을 닮았던 2014년형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별집 모양의 메시 타입으로 바뀠다. K7에서 봤던 스타일의 이 그릴은 지금까지 나온 K9의 것 중 가장 근사하다. BMW 7시리즈의 색채를 덜어낸 새로운 리어 램프도 멋지다. 이렇게 앞뒤 일부만 살짝 바꿨는데도 디자인의 완성도가 달라 보인다.

시승차는 새로 나온 V8 5.0이 배정됐다. K9 라인업 중 최고급 모델로, 현대 에쿠스, 쌍용 체어맨 W와 더불어 국산차 중 단 3개에 불과한 V8 모델이다.

V8 모델은 클러스터부터 다르다. 12.3인치 TFT LCD가 기계식 계기판 대신 그래픽으로 각종 계기 상태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유사한 타입을 쓴 재규어 XJ에 비해 훨씬 선명하고 잔상이 거의 없다. 이 클러스터는 과거 3.8 RVIP 모델에만 장착하다가 이번부터는 V8 5.0 모델에만 장착한다. 3.3 모델이나 3.8 모델을 고르는 이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게 아쉽다.

V8 5.0 타우 엔진의 정숙성과 부드러움은 이미 미국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그 존재감은 여전히 빛난다. 최고출력 334마력, 최대토크 40.3kg·m의 3.8 모델은 급가속 때 약간의 지체현상이 있지만 5.0 모델은 즉각적이고 빠르게 가속된다. 3.8 모델에 비해 최고출력이 91마력 높고 최대토크도 11.7kg·m나 높기 때문에 그 차이는 상당하다. 물론 5.0 모델이 3.8 모델보다 165kg 무겁긴 하지만 높아진 출력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K9의 전 모델에 적용된 주행모드 통합제어시스템은 엔진과 변속기의 반응을 노멀, 에코, 스포트, 스노 등 4가지로 조절하는 장비다. 이 장비는 3.8 VIP 모델과 5.0 모델에 적용된 전자제어 에어 서스펜션과 결합되면 서스펜션 특성까지 변화시킨다. 특히 스포트 모드를 작동시켰을 때는 하체가 더 단단해지며 고속주행의 안정감을 더한다. 욕심을 부린다면 5.0 엔진의 강력한 파워를 살리기 위해 더욱 스포티한 모드가 있으면 좋을 듯하다. 물론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K9 5.0의 정부 공인연비는 도심 6.3km/ℓ, 고속도로 9.9km/ℓ로, 배기량을 감안할 때 괜찮은 편이다.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절반씩 섞어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7.6km/ℓ의 연비를 기록했다.

K9 5.0은 각종 편의장비를 총 집결시킨 만큼 3.3이나 3.8 모델보다 다소 비싼 8620만원의 가격표를 달고 있다. 그래도 엇비슷한 성능을 지닌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나 BMW 7시리즈, 아우디 A8, 렉서스 LS에 비하면 절반 정도의 가격이다. 혼자서 주로 운전한다면 4990만원짜리 3.3 프레스티지 모델이, VIP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5.0 퀀텀을 권한다.

/서승범기자 ferrari@metroseoul.co.kr

꼼꼼 IT 리뷰 – 엔비디아 쉴드 태블릿

"고만고만한 태블릿은 가라"

고만고만한 태블릿이 범람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제품'

엔비디아 '쉴드 태블릿'을 2주일간 사용하면서 들었던 느낌이다. 최근 출시된 태블릿의 기능을 보면 KBS2 '개그콘서트'의 코너 '도찐개찐'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쉴드태블릿은 달랐다. 철저히 사용자의 입맛에 맞췄다. 기존에 출시된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 제품의 기능을 담고 있으면서 다양한 게이밍과 엔터테인먼트 성능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평소 검색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경우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지만 무선 컨트롤러를 연결하면 완벽한 게임기로 변모한다. 태블릿과 컨트롤러는 블루투스보다 뛰어난 연동성을 갖춘 WIFI 다이렉트를 통해 연결된다는 점에서 접길 현상도 없다.

특히 고사양 모바일 게임은 물론 PC게임까지 즐길 수 있다. PC게임 '하프라이프2', '트라인 2'는 물론 '더 워킹데드' 등 그래픽 사양이 높은 게임도 매끄럽게 실행된다.

바로 엔비디아의 테그라K1 모바일 프로세서가 탑재됐기 때문이다. 테그라K1은 두뇌 역할을 하는 코어 192개가 들어있어 빠른 연산처리 능력이 있다. 마치 태블릿으로 콘솔게임을 즐긴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 게임 스트리밍을 통해 집에서 하던 PC게임을 이동 중 쉴드 태블릿에서 실행할 수 있다.

여기에 평소 그림이나 그래픽 작업을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태블릿에 내장된 전자펜을 꺼내면 자동으로 엔비디아 대쉬보드(다이렉트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한 그림판)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편의성도 갖추고 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욕심일 수 있지만 배터리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경우 완충 상태에서 3시간, 동영상은 6시간 가량 즐길 수 있다.

/봉성창기자

LG전자 울트라HD TV 라인업 공개 LG전자는 다음달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쇼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5에서 40~105인치의 8K 곡면 등 울트라HD TV 풀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 제공

LGD 기술·디자인 접목 패널 개발

글로벌 1위 굳히기 나서

LG디스플레이가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한 패널로 글로벌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LCD TV의 두께를 7.5~8.2mm까지 줄일 수 있는 TV용 LCD 패널 '아트 슬림'을 개발해 LG전자와 중국 주요 TV 제조사 등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TV·모니터·노트북PC 등에 쓰이는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3년기도 선두를 유지했다. 이번 초박형 패널 개발 성공으로 앞으로 성장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에 LG디스플레이가 선보인 LCD TV용 패널은 기존 LCD TV 두께가 30㎜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75% 가량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수준으로 두께가 줄어들어 액자와 같은 형태 구현이 가능해졌다.

이 제품은 테두리 폭을 극소화한 '내로우 베젤' 기술과 기존의 보더리스 디자인을 바탕으로 LCD모듈의 뒷면 커버가 그대로 TV 완제품이 되도록 구조를 변경, 이를 곧바로 부착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을 결합시켰다.

특히 LCD 모듈의 후면 커버 재질로 알루미늄 복합소재를 사용, 제품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표면에 색상과 무늬를 넣을 수 있게 돼 디자인 차별화도 용이해졌다. LG디스플레이는 향후 복합소재 재질을 고객사의 제품군 구성에 따라 다양화해 맞춤형 디자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용기 LG디스플레이 TV사업부 부사장은 "앞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은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화질을 넘어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공간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라는 디자인이 화두가 될 것"이라며 "화질과 디자인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TV 트렌드를 만들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기자 ysw@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으로 인기

연말, 명절·기념일·가족모임 등 활용
특급호텔 시설에 5만~10만원대 저렴

연말연시를 맞아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가 새로운 파티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친척이나 지인이 방문했을 때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그러다 최근 파티문화가 발달하고, 가족모임·기념일 등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초기 게스트하우스가 저층 일부 세대를 개조해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최고급 호텔이나 리조트와 같은 시설에 뛰어난 조망권까지 갖춘 경우도 많아졌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이 과감히 투자에 나서고 있어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는 리조트급의 게스트하우스를 갖추고 있다. 한실, 양실, 일실을 콘셉트로 각 동 31층에 조성됐다. 하룻밤 이용료가 평일 10만원, 주말 12만원으로 탁 트인 바다 조망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해운대와 가까워 여름이면 아는 입주민을 통해 예약하려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것으로 유명하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일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인 '한화 갤러리아 포레'도 4층 커뮤니티센터에 호텔 수준의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돼 있다. 비수기 주말은 물론, 연말과 연초 성수기에는 평일에도 예약이 꽉 차 있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다. 입주민들의 특성상 해외에서 방문하는 클라이언트가 많아 외국인 이용객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의 '영종하늘도시 우미린1, 2차'에는 동 최상층에 게스트하우스 4실이 있다. 서해와 인천대교 조망이 가능하면서 하루 이용료는 인근 호텔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과 가까워 이른 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는 사람들이 입주민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이다.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의 '수원 SK Sky VIEW'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원룸형 3실과 투룸형 1실 총 4실로 구성됐다. 원룸형은 5만원, 투룸형은 7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입주민들에게 호응이 좋다.

분양 중이거나 분양 예정인 아파트 중에도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서는 곳들이 있다. 대구 중구 수창동 '대구역 센트럴자이'는 원룸과 투룸으로 조절 가능한 4개의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 또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일대 지어지는 '일산 요진 와이시티'는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한다. 120석 규모의 연회실과 연계해 돌잔치·회갑 등 파티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새해 1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호미지구 A1·6블록에서 공급될 '청주 호미지구 우미린 1차' 역시 커뮤니티시설로 게스트하우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지 주변 상당산성자연휴양림·청주랜드·명암저수지·문암생태공원 등을 통해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게 당장의 수익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입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건설사에게도 이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0208@metroseoul.co.kr

갤러리아포레 게스트하우스 내부

국토부, '1사 1공구제' 폐지

건설사 담합 막게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 간 담합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1사 1공구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1사 1공구제는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한 뒤 기업당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회사에 수주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한 것이지만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등 타 부처 산하의 주요 공공발주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사 1공구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LH, 농어촌공사 외에 한국수자원공사·철도시설관리공단·한국도로공사 등과도 협의가 마무리됐다.

1사 1공구제는 특히 턴키 공사나 4대 강 공사 등 공사 구간이 선형(線形)인 공사에 많이 적용돼 왔다.

또한 국토부는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가격은 물론 공사 수행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되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와 내년까지 시범 실시된 뒤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사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내 공공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선 최근 중동, 아시아 등 해외건설 주력 시장에서 현지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관 등을 통해 해당 국가 발주처에 서한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시장에서 우리 건설업체의 경쟁하는 해외 경쟁사들이 우리 업체가 담합에 따른 제재로 해외에서 공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비방전 또는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특히 페루·아랍에미리트(UAE)·카자흐스탄·멕시코·리비아·인도·인도네시아 등 7개 지역거점 해외건설협회 지부와 현지 진출 기업 등을 통해 발주처의 동향과 분위기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발주처가 국내 담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흑색선전이 우려되지만 대응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 국토부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 설명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건설 시장에서 오랫동안 발주처와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 기업의 모습을 담은 홍보자료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포스코 새해맞이 복주머니 경관조명 포스코는 29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POSCO the Great' 실현을 위한 임직원들의 소망을 담아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경관조명과 오방색 나무꽃을 선보였다. /포스코 제공

을미년 분양시장 24만 가구 쏟아진다

수도권 택지지구 위주로 늘고 지방은 줄어

올해 부동산시장을 견인한 분양열풍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분양시장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전국 20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5년 분양계획 물량을 조사한 결과 총 23만9639가구로 집계됐다. 내년 2월에 확정되는 LH 등 공사 등 공공물량을 포함하면 약 30만 가구로 추정돼 올해(24만2273가구) 실적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2014년 8만4813가구보다 56.3% 증가한 13만2553가구가 분양된다. 경기지역 신도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이 줄을 잇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879가구가 분양 예정인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일반분양이 1만6046가구로 76.8%를 차지한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장에서 총 9510가구 중 157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경기와 인천지역에서는 각각 10만2237가구, 9437가구를 공급한다. 화성 동탄2신도시, 시흥 배곧신도시,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택지지구 물량이 풍부하다.

지방 5대광역시에서는 올해 6만2363가구보다 67.5%나 급감한 2만248가구의 분양이 계획됐다. 지방 광역시는 최근 3~4년간 연평균 5만여 가구씩 공급되며 호황을 누렸지만 공급과잉 논란에 따라 건설사들이 새해에는 대폭 물량을 줄이는 모습이다.

/박선옥기자

기름진 송년회는 그만~ '슬림 파티푸드' 공세

식품업계, 연말 다이어트 고민 해결 제품 잇달아 선봬

최근 연말 송년회 파티에도 건강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송년회기간 기름진 음식 섭취와 잦은 음주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로 고민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식품업계가 다이어트는 물론 색다른 파티 분위기까지 고려한 '슬림 파티푸드'로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기존의 고칼로리 식품 대신 파티 분위기를 돋우면서 다이어트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하림이 이달 초 선보인 'IFF 토종닭 소금구이'는 닭고기를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워먹는 방식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걱정을 줄여 준다. 또 국내산 토종닭의 뼈를 발라내 만든 순살 100% 닭고기 제품으로 일반 닭고기 제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씹을수록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제품 속에 동봉된 '토판 허브맛 소금'을 뿌리기만 하면 별도의 양념 없이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하림 '토종닭 소금구이', 복음자리 건조과일 3종 (왼쪽부터)

닭고기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맥주다. 오비맥주의 저칼로리 맥주 '카스 라이트'는 열량이 100㎖ 기준 27㎉로 일반 맥주보다 33% 가량 낮다. 영하 4도의 온도에서 3일 동안 숙성하는 공법을 사용해 맛이 더욱 상쾌하고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프리미엄 맥주에 적용하던 3단 호핑 방식 고발효 공법을 사용해 전통적인 맥주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칼로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파티에 빠질 수 없는 디저트도 저칼로리 제품을 활용해 준비할 수 있다. 과일 가공 전문 브랜드인 복음자리가 출시한 '자연에서 온 과일칩' 3종은 각각 국내산 감귤 사과와 파인애플(필리핀산)을 원재료로 사용한 과일칩이다. 100% 순수 과일을 저온열풍건조 방식으로 제조해 바삭한 식감과 과일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먹기 좋은 사이즈로 가공해 핑거 푸드로 활용하기 편리하다.

초콜릿도 당 줄이기에 나섰다. 허쉬 코리아의 '허쉬 키세스'는 건강을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설탕의 비율을 19% 줄인 리뉴얼 제품을 선보였다.

샐러드를 보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무지방 드레싱도 출시됐다. 대상 청정원의 '리얼 제로'는 무지방 드레싱으로 포화지방을 비롯해 콜레스테롤·트랜스지방 함유량이 0%이다. 오렌지망고·라임파인애플·레드자몽오렌지 등 3가지 맛이 있으며 인공첨가물 대신 열대과일을 풍부하게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파티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칼로리를 낮춘 음료로는 하이트진로음료의 프리미엄 탄산수 '디아망'이 있다. 냉장 주연 공법을 사용해 탄산의 청량감 극대화해 탄산음료 대용으로 즐기기에 좋다. 상쾌한 라임향의 '디아망 라임향'과 보다 깨끗한 맛의 '디아망 플레인' 2가지가 출시돼 있다.

/장병일기자 ...@metroseoul.co.kr

강강술래 "양띠 고객 냉면이 공짜"

1월 한달 청양의 해 맞아 이벤트
곰탕·와인 '1+1' 기프트 행사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새해 1월 한달 동안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전 매장에서는 양띠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거나 눈썰매장·스키장 티켓을 지참할 경우 냉면(실곰면)1매를 무료 증정한다(중복제외 불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선물세트(500㎖ 5팩·15인분)도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소용량선물세트(350㎖ 5팩 10인분·2만2500원)를 선물로 준다.

이와 함께 와인(카르멘 몰텐 블랑) 1병을 주문하면 와인(카르멘 몰텐 카버네쇼비뇽) 1병을 증정하는 '1+1 기프트 행사'도 벌인다.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e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100% 한우갈비살로 만든 찰칩 한우떡갈비(360g×3박스·3만9600원)와 흑염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5200원)를 40% 할인 판매한다.

같은 기간 곰탕 대용량박스(800㎖ 6팩 18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박스(350㎖ 10팩 20인분) 3만78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50g 10봉) 3만6000원에 각각 40% 할인가로 선보인다.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손님세트(술래양념6대+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구이500g+돼지양념구이500g)도 40% 할인가(만원)로 구매 가능하다.

/장병일기자

코카콜라 '스토리텔링형' 패키지 출시

코카콜라사는 2015년 새해 소망을 빠릿하게 이뤄줄 메시지가 담긴 스토리텔링 패키지 18종을 1월 1일부터 출시하고 내년 3월까지 '빠릿하게 이뤄지라' 코카콜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양띠해에 각자의 소망을 이루고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하길 기원하며 '새해 소망' 메시지와 '양(羊)' 캐릭터가 함께 진리벨 디자인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메시지의 끝부분을 귀여운 '양(羊)' 그림으로 표현해 재미 요소를 더했다. 가격은 할인점 기준 500㎖ PET 1400원이다.

/장병일기자

새해가 오기도 전에 시작된 설 마케팅 홈플러스는 29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전국 점포와 인터넷쇼핑몰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벌인다. 홈플러스 측은 매걸 선물 사전 예약 구매가 지속 증가하며 올해는 처음으로 전체 선물세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구매 기간과 특곡과 혜택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제공

새해 스포츠산업·열린 관광 등 집중 지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마련 – 스포츠산업 펀드 400억원 조성

문화예술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펀드 조성을 통해 스포츠 분야 투자가 확대된다. 이 외에 태권도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관광 활동을 돕는 사업도 내년 새롭게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재난시고·학교폭력 가정 피해자를 위한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지원한다. 전문 예술치료사(미술·음악·무용 등)를 통한 1대 1 또는 소규모 집단 치유(10명 내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스포츠산업펀드도 조성한다. 모태펀드 스포츠계정 출자 200억원과 민간 기관투자자 출자 200억원을 합해 총 400억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권도원 전용경기장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를 통해 스포츠 산업 분야의 창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투자한다. 문체부 측은 스포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기존 스포츠 관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권도원 관련 투자도 이뤄진다.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 제작을 지원하고 태권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 상표권 활용·휘장사업 등 신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한국사 템플스테이' '반딧불 축제' '무주군 체험농장' 등 태권도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매년 전국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장 5개소를 선정해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2015 열린 관광지' 사업을 내년 시작한다. 장애인·노인 관광 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 개보수, 안내체계 개선, 종사자 교육 등에 쓰이게 된다.

/김수정기자 ksj1215@m...

쌀쌀한 출·퇴근길도 '훈훈'

보온성과 스타일 살린 웜비즈 룩 인기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 직장인들은 따뜻하면서도 격식을 차린 옷을 찾게 된다. 더욱이 최근 추운 날씨에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웜비즈 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본격적인 추위에 보온성이 뛰어나면서도 날씬한 실루엣을 강조할 수 있는 기능성 의류가 각광을 받고 있다"며 따뜻하고 멋스럽게 겨울 스타일을 높여줄 아이템을 소개했다.

크로커다일레이디는 화사한 핑크색 코트를 선보였다. 원버튼의 깔끔한 디자인에 주머니 지퍼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것이 특징이다. 울 100%로 만들어 보온성이 뛰어나고 폭스퍼 소재 목도리를 함께 하면 스타일과 따뜻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웜비즈 룩이 완성된다.

올리비아로렌의 구스다운 점퍼는 코트형의 디자인으로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구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해 보온성이 뛰어나면서도 가볍다.

특히 라쿤 퍼 모자가 목 부분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두톤으로 배색 처리를 해 멋스럽다. 허리 부분에는 스티치의 벨트 장식을 넣어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PAT는 여성용 점퍼 '써모스케어'를 주력 아이템으로 내세웠다.

신체를 보온병처럼 따뜻하게 유지해준다는 뜻의 써모스케어는 발열안감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속건성, 고투습 기능을 갖춰 체온조절 기능이 탁월하다. 또 허리라인을 강조해 겨울철 따뜻한 오피스 룩으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팬츠는 기모 소재가 인기다. 쉬즈미스·이사베이 등 주요 여성복 브랜드들은 기모 팬츠를 다양하게 내놨다. 허리 부분에 밴딩처리가 돼 있어 활동성이 좋으며 라인을 살린 슬림한 핏으로 다리가 길고 날씬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이라고 두껍게 껴입기보다는 보온성이 좋은 옷에 부츠, 머플러 등 방한 소품을 매치해 스타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노나곤, 팝업스토어 열어

제일모직과 YG엔터테인먼트가 공동설립한 '네추럴나인'의 캐주얼 브랜드 '노나곤'이 내년 1월 두 번째로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처음 팝업스토어를 열었던 노나곤은 1월 3일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을 시작으로 9일에는 편집매장인 10꼬르소꼬모 청담점과 애비뉴엘점, 16일에는 편집매장 비이커 등지에 팝업스토어를 다시 연다.

해외에서는 이탈리아 밀라노, 홍콩, 중국 상하이 등 첫 팝업스토어를 열었던 지역과 함께 중국 베이징과 대만 타이베이에 새로 진출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겨울철 피부관리 '마스크팩'이 효자

세안 후 10분 투자하면 건강한 피부결 도움

씻기도 귀찮은 겨울철, 피부관리 아이템으로 '마스크팩'이 인기다. 세안 후 얼굴에 10~15분가량 얹어 놓는 것만으로도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가꿀 수 있어서다. 최근 에센스 한 병의 보습 성분을 마스크 시트 한 장에 그대로 담은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처리퍼블릭은 극세사 원단의 '리얼 네이처 씨드 마스크' 10종을 내놨다.

머리카락보다 100분의 1 가는 초극세사 원단을 사용해 굴곡진 피부에 빈틈 없이 밀착돼 유효성분을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극세사 원단은 일반 면 소재의 마스크 시트보다 5배 정도 흡수율이 높고 섬유 조직이 촘촘해 영양과 보습 성분을 균일하고 지속적으로 전해준다고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설명했다.

리얼 네이처 씨드 마스크는 아프리카의 시어버터와 모로코의 아르간, 제주도의 동백꽃 씨앗, 멕시코의 치아씨드 등을 각각 담은 10종으로 구성됐다. 씨앗 성분은 성숙한 식물보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 겨울철 건조하고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 준다.

스킨푸드가 선보인 '에브리데이 마스크 시트' 5종은 렌틸콩, 오렌지, 올리브-요거트-퀴노아 등 슈퍼푸드로 알려진 원료 추출물이 들어 있는 제품이다.

산뜻피부, 깨끗피부, 미끈피부, 촉촉피부, 보습피부 등 피부 니즈에 따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이넬화장품 이든은 키토산 천연 실크와 히알루론산 엠플로 구성된 '닥터 아쿠아 샷 동안 마스크'를 선보였다.

사용 직전 히알루론산 엠플을 키토산 천연 실크에 섞어 사용하면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흡수, 도톰한 겔로 자유로이 얼굴에 완벽하게 밀착돼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꿔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온라인몰, 겨울방학 맞아 가구 판매↑

기획전 봇물… 할인·무료 배송 등 혜택 다양

겨울 방학 시즌이 되면서 온라인몰에서 학생용 가구를 찾는 학부모가 늘었다. 이는 쿠폰이나 할인 기획전을 이용해 저렴하게 공부방을 꾸며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파크의 경우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학생 가구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11번가에서는 학생용 책상 매출이 41% 뛰었다. 이에 업계가 기획전을 진행해 방학 시즌 끌기에 나섰다.

인터파크는 내년 1월 4일까지 '한샘 아이 포인트 대란'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 기간 구입액의 5%를 적립해주고 이벤트 상품을 구입하면 최대 2만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준다.

대표 상품으로는 '샘키즈 원목 수납장 400미니멈', '조이 책상의자', '뮤빅 책상' 등이 있다. 물박이 장은 무료 실측 서비스와 한정 수량 사은품을 제공한다.

옥션은 '옥션 1등 공부방, 신나는 DIY' 기획전을 상시 운영한다. 친환경 소재 가구, 기능성 침구, 소품 등 공부방에 필요한 상품을 최대 69%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31일까지는 5000원 이상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G마켓은 내년 1월 3일까지 아이 책상, 의자, 옷장, 침대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AK몰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비법 책상 모음전'을 내년 1월 16일까지 연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 방학 시즌을 맞아 자녀의 책상, 의자 등을 온라인 몰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구입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부와 독서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성장과 취향에 맞게 가구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수정기자

홈쇼핑 올 히트상품, "패션 강세 지속"

홈쇼핑 업계가 올해 히트 상품을 발표했다. 뷰티·패션 상품이 여전히 강세인 가운데 경기 불황으로 기본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상품도 히트 상품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 히트 상품 "패션이 1등"

GS샵에 따르면 연간 TV 홈쇼핑 히트 상품 1위는 의류 브랜드인 '스튜디오 보니'(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브랜드는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7만 세트가 판매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보니알렉스'의 세컨드 브랜드로 실용적인 디자인의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여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를 얻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J오쇼핑에서는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의류 브랜드가 차지했으며 롯데홈쇼핑도 지난해 5월 단독 론칭한 '에지오 스테파니'가 1위에 올랐다. 또 현대홈쇼핑에서는 '라인로건', '안지크', '엘렌 드레이시' 등 의류 브랜드가 1~3위를 기록했다.

◆ "불황형 소비가 대세"

CJ오쇼핑에서는 올해 모노톤 의류가 인기를 끌었다. 모노톤은 다양한 옷과 매치하기 쉽고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오래 두고 입을 수 있어 경기 불황에 부담 없이 찾게 되는 색상이다. 지오송지오, '에셀리아', '바이엘리', '나탈리쉐즈', 'NY212' 총 5개 브랜드에서 블랙과 그레이 등 모노톤의 베이직 아이템이 인기였다.

또 '불황에 색조화장품이 잘 팔린다'는 속설을 증명하듯 색조화장품 카테고리 주문 금액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했다.

현대홈쇼핑에서는 의류 상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카테고리 인기 상품은 모두 10만원 미만의 실속형 상품이 차지했다. 8위 '에코라믹 프라이팬'과 10위에 오른 '인터쿡 다이아몬드 프라이팬'은 3만9900원의 가격에 5종 구성을 앞세워 두 제품을 합해 판매량 65만 세트를 기록했다.

NS홈쇼핑은 '신강식 패션'(6위), '마담엘레강스패션'(9위) 등 6만~8만원대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 패션 상품이 강세였다.

/김수정기자

'올 이슈 암'… 위·대장·폐

대한암협회 선정

대한암협회(회장 구범환)가 위암과 대장암, 폐암을 2014년 '3대 이슈 암'으로 선정했다. 한국인의 대표 사망원인인 암에 대해 최근 보고된 암 관련 각종 데이터와 사회적 파장도를 종합한 결과다.

먼저 지난 7월 고 유채영씨가 위암 말기로 유명을 달리하자 젊은 연령층의 위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사실 위암은 6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암으로 그동안 고령층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 인식돼 왔다. 또 한국의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조기 진단 비율과 평균 5년 상대 생존율 등으로 인해 예후가 좋은 암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진행성 위암 중 '미만성 위암'은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진단이 늦으면 다각적인 치료를 해도 상태의 호전이 쉽지 않다. 실제로 20대 환자 중 건강검진으로 위암이 발견되는 비율이 2006년 25%에서 2011년 37.5%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위암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

갑상선암과 위암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대장암은 지난달 배우 故 김자옥씨가 대장암에서 전이된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별세하자 이슈가 됐다.

2011년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대장암 발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아시아 1위, 세계 4위라고 밝혔다. 더욱이 1999년 10만 명당 27.0명이던 한국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2008년 47.0명으로 연평균 6.9%나 상승했다.

문제는 전이 단계에서의 생존율이 낮다는 것이다. 대장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3.8%로 서구 국가와 비슷하지만 전이 단계에서의 5년 상대 생존율은 남성이 18.6%, 여성이 17.6%로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대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건강검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폐암은 지난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인 동시에 2015년 담뱃값 인상 등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한 질환이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65세 이상 암 환자들의 사망률 1위를 지켜온 폐암은 최근 발생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IARC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글로보칸 2012 (Globocan 2012)'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새롭게 암 진단을 받은 전 세계 환자는 총 1410만 명인데 그중 폐암이 180만명(13%)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대한암협회는 암 환자를 위한 치료 보장성과 접근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2015년 복지 이렇게 달라진다!

복지부, 환자 보장성 등 보건·복지 혜택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내년도 보건·복지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부는 29일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환자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분야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총 200여 항목에 걸쳐 확대되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환자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현행 50%에서 70%까지 늘어난다.

또 내년 7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이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아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부터 무료 시행되고 있는 국가 예방접종 항목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회복지 부분에서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 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게다가 갑작스런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도 추진되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저출산 고령화 분야에서는 우선 국내 입양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 범위가 확대되며 안전 확인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 활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며 고령사회를 대비한 관련 전문인력도 양성된다.

또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월부터 실직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도 만들어지며 올해 어르신에게 출발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현행 87만원에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된 금연 정책도 더욱 강화된다. 1월 1일부터 담뱃세가 2000원 인상되는 동시에 국민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에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12월 말로 종료된다.

/황재용기자 hazel39@metroseoul.co.kr

인공방광수술 UAE서 '주목'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교수 무수혈 수술 강연 호평

이대목동병원은 이동현(사진 가운데) 비뇨기과 교수가 최근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2014 UAE 한국 의료 홍보회'에서 무수혈 인공방광수술에 대한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홍보회는 한국과 UAE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기술에 대한 UAE 현지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방광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소장으로 인공방광을 만들어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수술법인 무수혈 인공방광수술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교수는 "이번 홍보회를 통해 이대목동병원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무수혈 인공방광수술이 국내는 물론 UAE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만큼 향후 UAE를 비롯한 해외 환자들에게도 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완생' 꿈꾸는 직장인… 시나브로 몸은 혹사

불편한 장에 건조한 피부, 눈의 피로로 '미생'

최근 드라마 '미생'을 비롯해 예능 프로그램 '오늘부터 출근' 등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방송 콘텐츠의 인기가 뜨겁다. 특히 탄탄한 스토리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며 직장인들의 교과서로 불리는 드라마 '미생'은 순간 최고 시청률 14.1%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0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통증을 겪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최근 6개월 내 각종 신체적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그냥 참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방치했다가는 더 큰 질병이 될 수 있다.

직장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변비는 운동 부족과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힌다. 앉아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오랜 시간 장과 복부에 압박을 가해 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복용은 직장인들의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쎌바이오텍의 '듀오락 케어'는 6종의 혼합유산균을 캡슐로 만들었다.

또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실내 난방으로 건조해지면서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깨뜨려 각종 트러블을 유발한다. 또 피부 탄력 저하와 노화 촉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수시로 미스트를 뿌려 피부에 수분을 충전해줘야 한다. 하지만 피부 표면에 남은 미스트가 증발하면서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는 고보습 미스트를 뿌리고 손으로 두들겨 흡수시켜주는 것이 좋다.

'아토팜 인텐시브 케어 MLE 에센스 미스트'는 고보습 에센스 미스트로 피부 지질구조와 유사한 국제 특허 기술 MLE가 피부 보습·보호막을 형성해 장시간 보습을 유지시켜준다.

직장인들이 흔히 고통을 호소하는 것 중에 눈의 피로가 있다. 오랜 시간 모니터를 쳐다보다 보면 눈이 뻑뻑해지는 피로감은 물론이고 안구건조증, 시력저하, 결막염과 같은 눈 질환에 걸릴 수 있다. 컴퓨터·태블릿PC·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특화된 렌즈가 장착된 안경으로 눈을 보호해 주는 간편한 방법을 추천한다.

니콘안경렌즈의 '니콘 릴렉씨 PC'는 렌즈의 도수 변화와 디자인을 디지털 기기 사용에 최적화,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원거리 시야를 선명하게 해주는 컴퓨터용 안경렌즈다.

/정영일기자

metro entertainment

두 한국 오빠와 프랑스 오빠의 만남

두 한국 남자와 한 명의 프랑스 남자가 만났다. 어쿠스틱 듀오 '소심한 오빠들'(영덕·승포)은 지난 19일 발매한 미니앨범 '샤이닝스타'에서 프랑스 출신 방송인 로빈 데이아나와 호흡을 맞췄다. 타이틀곡 '샤이닝스타'는 부드럽고 잔잔한 어쿠스틱 사운드 위로 소심한 오빠들의 하모니와 로빈의 불어 랩이 조화를 이뤄 친숙하면서도 신선한 느낌을 준다.

소심한오빠들, 신곡 '샤이닝스타'서 로빈과 호흡
로빈,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된 랩 파트 작사까지

◆ 우리는 둔보직

지난 2012년에 데뷔한 소심한 오빠들은 스스로를 둔보직(듣도 보도 못한 잡놈의 줄임말)이라고 표현했다.

"멋있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저희들이 멋있는 팀명을 가져봤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심한 오빠들이란 이름을 쓰게 됐죠. 팀명 후보 중엔 교회 오빠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나더데이, 카카오스토리 등이 있었어요. 그 중 저희 프로듀서님이 가장 어울릴 만한 이름을 추천해 주셔서 소심한오빠들이 됐죠." (승포)

승포와 영덕은 각각 강원도 삼척과 충북 옥천 출신으로 가수의 꿈을 안고 올라온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났다.

"영덕에게 니는 가수가 꿈인데 너는 뭐 하고 싶냐고 다짜고짜 물었죠. 우리집에 작업실을 꾸려놨으니 이상한 데 돈 쓰지 말고 나랑 같이 음악하자고요." (승포)

"만나자마자 승포 형이 장비 자랑을 하면서 음악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촌놈이라서 순진하게 그걸 다 믿고 진짜 찾아갔어요. 그렇게 위험한 동거가 시작됐죠." (영덕)

첫 만남에 운명처럼 팀을 결성하게 된 두 사람은 '홍대 인디신'에 입성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들은 강릉·춘천 지역의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레크리에이션 댄싱 듀오'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다.

"홍대 신은 입성하기 어려워요. 서울에 와서 두 달 정도 대학로에서 거리공연을 한 뒤 홍대 레이블에 연락을 했죠. 여러 곳에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은 한 곳에서만 왔어요. 그렇게 홍대의 한 클럽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관객이 한 40명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꽤 많은 숫자였어요. 그때를 계기로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 후로 7개월 정도 일주일에 두 번씩 무료공연도 했고요." (승포)

"꾸준히 무료공연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둘 다 음악 전공자는 아니니 매 무대마다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임했죠." (영덕)

◆ 내년에도 함께하고파

"회사 끼리 알아서 사무적으로 만났다"는 소심한오빠들의 말과 달리 두 사람과 로빈은 인터뷰 내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로빈이 한국어 단어를 떠올리는 데 어려워하면 영덕과 승포는 그에 딱 맞는 단어를 제시해 주기도 했다.

"로빈이 '샤이닝스타' 랩 부분 가사를 직접 써왔는데 불어랑 한국어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어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꾸만 생각나는 바닷가' 이 부분에선 터보의 '회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영덕)

"진짜 '터보 감성'이었어요. 외국 사람이 쓴 가사 같지 않았죠. 뭔가 동해바다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요(웃음)." (승포)

로빈은 '샤이닝스타' 피처링은 물론 소심한오빠들의 연말 공연에도 함께 했다.

"비보이 시절에 사람들 앞에 서봤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올라가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음악은 흘러나오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무척 긴장했어요. 제가 게스트인데 무대를 망쳐선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신경 많이 썼어요." (로빈)

'샤이닝스타'의 프랑스어 랩 부분의 뜻을 묻자 로빈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첫 만남, 고백 그런 것들에 대한 추억을 적었어요. 제가 이방인이라 새벽에 어두운 조명 아래서 쓴 가사예요." (로빈)

소심한 오빠들은 로빈의 덕을 많이 볼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인기 듀오다.

"아직도 우리 공연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신기하기만 해요. 처음에는 우릴 보러 온 관객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요. 그래서 200명 정도의 관객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죠. 하지만 팬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이렇게 지낸 날도 멀지 않았다고. 손에 닿지 못할 곳으로 곧 가게 될 거라고 말이죠(웃음)." (승포)

"내년에 열릴 음악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되면 로빈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아직 한국에서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주고 싶어요." (영덕)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디자인/[illegible]

어쿠스틱 듀오 소심한오빠들&로빈

FNC 킹덤 일본 공연 뜨거웠다

겨울과 함께 돌아온 노을

앨범 '보이지 않는 것들' 발표

감수성을 자극하는 4인조 남성 보컬그룹 노을(이상곤·전우성·나성호·강균성)이 돌아온다.

노을의 소속사 YNB엔터테인먼트는 28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새 앨범의 예인 재킷 사진과 함께 발매 소식을 전했다. 노을은 내년 1월 8일 세 번째 미니앨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표해 부드러운 멜로디를 다시 한 번 선보일 전망이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미니앨범 '흔적'을 발표한 이후 1년 2개월만에 선보이는 미니앨범으로 그룹 화시비사운드에 참여한 타이틀곡 '목소리' 등 총 7곡을 담았다. 특히 노을의 전 멤버가 작사·작곡에 참여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metroseoul.co.kr

도쿄·오사카서 3만5000관객

소속 아티스트 총출동 팬 열광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 소속 아티스트들이 일본에서 뭉쳤다.

FNC는 지난 20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메세에 이어 27일 오사카의 오사카 조홀에서 패밀리 콘서트 'FNC킹덤'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FT아일랜드·씨엔블루·주니엘·AOA·엔플라잉 등 FNC 소속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 이번 공연에는 총 3만5000여 명의 관객이 몰렸다.

FT아일랜드와 씨엔블루는 각각 낮 공연과 저녁 공연의 헤드라이너로 포문을 열었다.

FT아일랜드 이홍기는 무대에서 뛰어 내려와 관객 사이를 질주하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냈다. FT아일랜드 멤버들은 열광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즉흥적으로 앙코르 곡을 선사하는 등 과감한 무대로 일본 팬들을 열광케 만들었다.

씨엔블루는 [illegible] 무대에만 [illegible] 삶이 숨쉬는 곳이 아니며 '오늘 이 무대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씨엔블루는 '덤 폭시' '류 캔 두 잇' '안 떠미 레드' 등 자작곡 무대를 이어갔다. 특히 오사카 공연에서는 오사카 사투리로 인사해 현지 팬들에게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올해 '대세 걸그룹'으로 떠오른 AOA는 일본어 버전 '사뿐사뿐'을, 차세대 싱어송라이터 주니엘은 '연애하나봐' 등 히트곡을 불렀다. 아직 데뷔하지 않은 엔플라잉은 '노크 노크'를 선보여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색다른 컬래버레이션 [illegible] 펼쳐졌다. 이날 이재진(FT아일랜드)과 주니엘, 지민(AOA)과 이승협(엔플라잉), 이종현(씨엔블루)과 유나(AOA), 이홍기(FT아일랜드)와 초아(AOA)는 짝을 이뤄 4가지 테마의 듀엣 스테이지를 선사했다. 공연의 마지막은 FNC 소속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화려하게 무대로 장식됐다.

한편 FT아일랜드는 내년 1월 첫 남미·유럽 투어에 나선다. AOA는 내년 2월 일본에서 첫 싱글을 발매할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fanglee@metroseoul.co.kr

에이핑크 12월 음악방송 '올킬'

'미스터 츄' 이어 '러브'까지 대세 걸그룹 증명

걸그룹 에이핑크(사진)가 12월 음악방송을 '올킬' 했다.

지난달 21일 미니 5집 타이틀곡 '러브'로 컴백한 에이핑크는 지난 2일 MBC뮤직 '더 쇼'를 시작으로 12월 한 달 동안 MBC '쇼! 음악중심', KBS2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엠넷 '엠 카운트다운' 등 모든 음악방송을 1위로 장식했다.

에이핑크는 지난달 21일 컴백했으나 음원과 음반이 24일 발매된 관계로 12월부터 음악방송 순위 차트에 진입하게 됐다. 진입 첫 주부터 결방과 결산을 제외한 12월 음악방송 순위 발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대세임을 증명했다.

올해 에이핑크는 따뜻한 봄날 응원송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미니 4집 타이틀곡 '미스터 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어 '러브'로 연말 음악방송을 장식했다. 음원 한 때 동안 공식 트로피 1위를 19번 차지하며 사랑과 인기를 실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에이핑크는 내년 1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장병호기자

위너 'WWIC 2015' 서울 편 공개

30일 선 예매, 1월 2일 2차 예매

그룹 위너가 'WWIC 2015'의 서울 포스터와 영상을 함께 공개하며 예매 일정을 알렸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29일 오전 위너의 공식 페이스북을 비롯해 YG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WWIC 2015' 서울 포스터를 게재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검은색 의상을 입은 YG케이플러스 소속 모델들이 양 옆으로 줄 서 있는 가운데 수트를 갖춰 입은 위너가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

포스터와 함께 선보인 영상에서 송민호는 "'WWIC 2015'의 의미는 전 세계 이너서클(위너의 팬클럽 이름)과 함께 하는 월드와이드 이너서클 컨퍼런스"라고 설명했다. 김진우는 "위너에게는 가장 기대되고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행사와 관련한 예매 일정도 공지됐다. 30일 오후 8시 인터파크를 통해 팬클럽 선행 예매가 진행되며 일반 예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예매는 내년 1월 2일 오후 8시에 오픈될 예정이다.

한편 위너는 1월 10일 베이징 워커스 짐내지움을 시작으로 1월 17일 상하이 그랜드 스테이지, 1월 24일 심천 바오안 짐내지움 등 중화권 공연장에서 동일 행사를 연다. 이후 1월 31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국내 팬과 만난다. /김학철기자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천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tcast

쌍둥이·삼둥이 아빠 "추성훈이 부럽다"

이휘재·송일국, '슈퍼맨이 돌아왔다' 송년회서 딸 욕심
이서언·서준 해외진출 선언? 송일국 육아 비결 공개
'아빠! 어디가?' 아류 논란에는 "일상성으로 차별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휘재 송일국이 추성훈을 부러워했다.

이휘재는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슈퍼맨이 돌아왔다' 송년파티에서 "제일 부러운 건 추성훈"이라며 "딸 추사랑과의 광고 계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세 돌이 지난 부모들은 다 부럽다"며 "아이들이 알아서 먹고 자고 행동해 대화하는 게 신기하다"고 덧붙였다.

송일국은 "딸을 갖고 싶다"며 추사랑과 타블로의 딸 이하루를 언급했다. 그는 "아내에게 딸을 낳자고 아직 말하지 못했다. 얘기하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이휘재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서언·서준 쌍둥이 아빠, 송일국은 대한·민국·만세 삼둥이 아빠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 이휘재는 쌍둥이의 해외진출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서준이는 카메라가 돌면 안 하던 행동을 한다. 게고 본능이 적당하고 끼가 있다"며 "마침 전 베트남 여행을 함께 갔는데 현지인들이 알아보더라. 빨리 베트남어와 중국어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트윈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되고 싶다"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송일국은 일명 '송일국 육아법'으로 국민 아빠의 면모를 보였다.

송일국은 "육아 원칙은 따로 없다. 늘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는다"며 "원칙이라면 부부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아이들이 본다. 실제로 결혼해서 지금까지 언성 높여 싸운 적이 없다. 존대하는 이유도 (육아를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과 아빠들의 힘겨운 육아 일기로 재미와 감동을 주며 '2014 KBS 연예대상'에서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 상을 받았다.

지난 28일 방송도 지난 주보다 2% 상승한 19.6%(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24주 연속 동시간대 일요일 예능 코너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MBC '아빠! 어디가?'의 아류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강봉규 PD는 "기획하면서 논란을 예상했다"며 "가장 다른 건 여행이라는 이벤트가 아닌 일상성이다. 이를 위해 제작진과 출연진은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아이들과 아버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하기도 하고 편집되기도 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매일 성장하고 이에 따라 아빠들의 태도도 달라진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권효진기자 ennh21@metroseoul.co.kr

이시언, 연초부터 달린다

드라마 '킬미, 힐미' 정신과 의사 출연

배우 이시언(사진)이 MBC 새 수목드라마 '킬미, 힐미'에 출연한다.

이시언은 '킬미, 힐미'에서 정신과 의사 오리진(황정음)의 동료 의사 박 선생 역을 맡았다.

지난 27일 종영한 SBS 주말극 '모던파머' 속 코믹한 모습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는 '모던파머'에서 시한부 인생이지만 긍정적인 순정남 유한철로 분해 미스터리녀 이수연(곽지민)과 풋풋한 사랑을 이야기했다.

특히 마지막 회에서는 극적으로 암을 회복했다. 이수연과 '연엔드 철'이라는 커플명을 얻으며 새로운 인식을 시청자에게 심어줬다.

이시언이 출연하는 '킬미, 힐미'는 다중인격장애를 앓는 재벌 3세와 정신과 의사의 로맨스. 이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이다.

지성이 7개 인격을 가진 재벌 3세 차도현, 황정음이 차도현의 비밀 주치의 오리진, 박서준이 오리진의 쌍둥이 오빠 오리온으로 분했다. '미스터 백' 후속작으로 내년 1월 7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권효진기자

30일 연말 시상식 '특별 무대'

걸그룹 씨스타 효린과 배우 최진혁이 30일 연말 시상식에서 특별한 축하 무대를 꾸민다.

효린은 30일 '2014 SBS 연예대상'에서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한 아시안게임 우슈 금메달리스트 이하성, 청각장애 천재 스포츠댄서 이익희, 세계적인 태권 퍼포먼스팀 K타이거즈와 함께 한다.

이하성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우슈 남자 장권 금메달리스트다. 6년 전 '스타킹'에 우슈 신동으로 출연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다. 청각장애인 이익희는 4년 연속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댄스스포츠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한 실력자다. 지난해 '스타킹'을 통해 시청자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태권 퍼포먼스팀 K타이거즈는 국내외에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창의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에 3D 홀로그램쇼까지 더해 시선을 끈다.

'연예대상' 축하무대는 효린이 자신의 노래를 개사해 부르면 각 출연자가 그에 걸맞은 퍼포먼스와 장기를 보여주는 형식이다. 이경규·성유리·배성재가 진행하는 '2014 SBS 연예대상'은 30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될 예정이다.

같은 날 '2014 MBC 연기대상'에서는 배우 최진혁이 록 보컬로 변신한다. 3인조 신인 록 밴드 로열 파이러츠와 함께 '연기대상' 특별 무대에 설 예정이다.

최진혁은 지난해 MBC 드라마 '구가의 서' OST에 직접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실력 있는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시청자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에 '연기대상'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로열 파이러츠 역시 최진혁 못지 않은 꽃미남 멤버로 구성된 밴드라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최진혁은 현재 월화극 '오만과 편견'에서 구동치 역으로 열연 중이다. 특별 축하 무대뿐만 아니라 베스트커플상·인기상·우수 연기상·특별기획 부문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4 MBC 연기대상'은 신동엽과 걸그룹 소녀시대 수영이 진행한다. 30일 오후 8시55분부터 방송된다.

/권효진기자

씨스타 효린 / 최진혁

'SBS 연예대상' 효린·'스타킹' 출연진
'MBC 연기대상'선 최진혁 로커 변신

발칙한 도발과 은밀한 유쾌함…

film review
송형주기자 sojun@metroseoul.co.kr

주체적인 여성의 이야기, 안정적 결말 아쉬워

■워킹걸

보희(조여정)는 '워킹걸'이다. 여전히 자신만을 바라봐주는 대학교수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지만 보희의 머릿속은 자나 깨나 늘 일 생각뿐이다. 잦은 야근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기 일쑤인 보희에게 남편의 잠자리 요구는 부담스러운 짐일 뿐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며 쌓아온 경력도 한 순간의 실수로 다 날아가는 법이다. 승진의 기회를 눈앞에 둔 보희는 프레젠테이션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까지 짐을 나가면서 절망에 빠진 보희 앞에 또 다른 '워킹걸' 난희(클라라)가 나타난다.

영화 '워킹걸'의 출발은 무척 도발적이다. 오직 일에서만 즐거움을 느끼던 보희는 자칭 성(性) 전문가인 난희를 만나 오르가즘 이라는 또 다른 삶의 즐거움을 접몽한다. 여성으로서 새롭게 깨어난 보희는 섬을 음지가 아닌 양지로 꺼내어 한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난희의 섹스숍에 퇴직금을 쏟아 붓는다. 영화는 이들이 함께 섹스숍을 운영하며 겪는 이야기를 포착하게 그린다.

성공한 커리어우먼인 보희, 그리고 섹시한 이미지의 난희는 한국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잘 보여준다. 사회에서 주목 받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거나 성적인 매력을 어필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들 캐릭터에 녹아있다. '워킹걸'이 흥미로운 것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섹스숍을 무대로 삼아 고지식한 사회를 향한 도발적인 문제제기로 펼쳤다는 점이다. 성에 대한 솔직한 태도 속에서 보다 주체적인 여성으로 거듭나는 보희와 난희의 이야기가 은밀한 유쾌함을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발칙한 도발이 결말은 너무나 안정적이다. 재기에 성공해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보희에게 영화는 또 한 번 '일과 가족'이라는 선택지를 던진다.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유쾌한 탈주를 즐기던 보희의 마지막 선택은 영화 전반의 분위기를 거스를 정도로 지나치게 무난하다.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에 의문을 던지며 시작한 도발은 결국 그렇게 기존 사회의 가치관에 편입되고 만다. 상업영화로서는 최선의 결말이겠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워킹걸'에는 몇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병맛에 가까운 소품과 설정들은 정범식 감독 특유의 취향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다. 생애 첫 코미디 연기에 도전한 조여정의 몸을 내던진 열연도 빼놓을 수 없다. 다만 영화배우로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민 클라라는 가능성만 보여주는데 그친 것 같다. 청소년 관람불가. 1월 8일 개봉.

배리어프리영화 안방서 본다

CJ E&M·영진위 VOD 서비스 진행

CJ E&M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배리어프리영화를 VOD 서비스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배리어프리영화 VOD 서비스는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해 CJ E&M과 영화진흥위원회가 함께 마련했다.

배리어프리영화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음향이 더해진 영화다. CJ E&M과 영진위, CJ CGV 등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전국 30여개 극장에서 약 5만 명의 장애인들이 40여 편의 영화를 관람해왔다. 그러나 극장에서 영화 관람이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극장에서 안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VOD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

CJ E&M은 '수상한 그녀' '베를린' '타워' 등 2012년 이후 개봉한 23편의 영화 콘텐츠를 배리어프리영화 제작을 위해 제공한다. 영진위는 배리어프리영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케이블TV VOD 전문업체인 홈초이스가 콘텐츠의 온라인 상영 지원을 담당한다.

배리어프리영화는 일반 영화 VOD 콘텐츠와 동일한 가격으로 홈초이스에서 제공된다. 수익금 일부는 장애인들의 고프라인 극장 관람료 지원과 배리어프리영화 제작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CJ E&M CSV 경영담 남궁종 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영화를 배리어프리영화용으로 제공해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탐희호기자

스크린으로 만나는 70년대

'강남 1970' 패션·소품 등 시대상 재현

이민호·김래원 주연의 영화 '강남 1970'(감독 유하)이 70년대 스타일을 완벽하게 재현해 관심을 모은다.

'강남 1970'은 '말죽거리 잔혹사'와 '비열한 거리'를 잇는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 완결편이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970년대를 리얼하게 담아 관객들의 눈길을 끌 예정이다.

유하 감독은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에서 대선자금을 만들기 위해 권력층에서 강남 개발을 하게 됐다는 구절을 봤다"며 70년대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게 된 시초를 밝혔다. 땅으로 일확천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유일한 시대에 최하층에서 벗어나고자 땅과 돈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모습과 문화를 그대로 스크린에 옮겼다.

주인공 종대 역을 맡은 이민호는 이번 영화에서 기존의 재벌남 이미지를 벗고 70년대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김래원도 보잉 선글라스와 화려한 프린트의 벅 칼라 셔츠로 70년대 패션을 리얼하게 재현했다.

또한 지금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삼륜차, 당시 최고급이던 불보 자가용 등 다시 한 번 복고 열풍을 일으킬 소품이 대거 등장해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70년대 사회를 흔들었던 충비랄 열풍을 불러온 카바레 문화는 극중 '봉봉카바레'로 재탄생해 관객의 시선을 끌 전망이다.

1970년대 서울, 개발이 시작되던 강남 땅을 둘러싼 두 남자의 욕망과 의리, 배신을 그린 '강남 1970'은 내년 1월 21일 개봉 예정이다. /탐희호기자

강남 "새해 첫날 극장서 만나요"

'마다가스카의 펭귄' 홍보대사로 일일 극장직원

최근 예능계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그룹 엠아이비(M.I.B) 멤버 강남이 새해 첫날 극장 직원으로 변신한다.

오는 31일 개봉을 앞둔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의 펭귄' 홍보대사로 선정된 강남은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 CGV 왕십리와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일일 극장 직원이 되어 관객과 만난다.

강남은 일일 극장 직원은 물론 극장 내 대형 미끄럼틀 이벤트, 관객과의 포토타임, 허그와 악수 등으로 관객에게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는 영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여준 관객들의 호응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

'마다가스카의 펭귄'은 악동 펭귄 4총사가 펼치는 기상천외한 작전을 그린 영화다. 드림웍스의 신작으로 '마다가스카' 시리즈의 에릭 다넬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탐희호기자

"한국 축구 체질 개선에 최우선 비중"

태극전사, 슈틸리케 감독 지도 아래 현지 첫 훈련

아시안컵을 앞둔 태극전사들이 호주에서 첫 훈련에 들어갔다.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기술과 전술보다 체질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틸리케 감독은 29일 호주 시드니 맥쿼리 대학 훈련장에서 만난 취재진에 "선수들의 축구에 대한 생각, 접근법, 경기에 임하는 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누구를 원톱 공격수로 쓰느냐, 득점을 어떻게 이루느냐 등 전술적 문제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미리 해결해야 할 원리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임 후 한국 축구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움츠러들고 피곤하려는 듯한 자세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9월 한국 사령탑에 전임된 뒤 시간이 나는 대로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FA(대한축구협회)컵, 대학 리그 등을 찾아 경기를 관람했다. 그는 "주로 K리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축구는 볼을 점유하려고 하지 않고 수비하는 데 신경을 더 많이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한 볼을 많이 점유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자세를 선수 개개인에게 주입하는 게 현시점에서 내가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슈틸리케 감독은 "내가 원하는 것은 선수들이 주도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할 때 선수들뿐만 아니라 팀도 색깔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팀의 최근 경기인 지난달 요르단, 이란과의 중동 원정 2연전에서 나타난 결과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이 브라질 월드컵 본선 때 보인 모습과 많이 달랐다"며 "선수들의 주도적, 능동적 자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올해 아시안컵에서 A조에 편성돼 오만-쿠웨이트-호주와 조별리그에서 차례로 맞붙는다. 다음달 4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을 치른 뒤 10일 오만을 시작으로 아시안컵 조별리그 경기에 나선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28일 호주 시드니 맥쿼리대학교 스포츠필드에서 울리 슈틸리케 감독(오른쪽)의 지도 아래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KCC·삼성, 새해 첫날 맞대결

연패 행진 속 절박한 승부

프로농구 전주 KCC와 서울 삼성이 2015년 1월 1일 맞대결을 펼친다.

두 팀은 1980년대 농구대잔치 시절 매해 1월 1일을 장식했던 삼성전자와 현대를 전신으로 한다. 1, 2, 3차 대회로 나뉘어 열리던 농구대잔치의 1차 대회 결승이 늘 1월 1일에 열렸던 당시 큰 이변이 없는 한 삼성과 현대는 결승에서 만나곤 했다.

기아산업이 실업 무대 강자로 군림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같은 날 기아-현대 또는 기아-삼성의 경기가 열릴 때가 많아지기는 했다. 그럼에도 올드 팬들에게 1월 1일은 삼성과 현대의 불꽃튀는 맞대결이 펼쳐진 날로 기억에 남아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두 팀의 처지는 농구대잔치 시절과는 달라졌다. KCC가 8승22패, 삼성은 7승24패로 나란히 꼴찌와 꼴찌에서 두 번째 자리를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팀의 감독은 10개 구단 사령탑 가운데서도 인기가 많은 허재 감독과 이상민 감독이다. 28일까지 KCC는 6연패, 삼성은 3연패 늪에 빠져 있다. 이날 경기는 두 팀에 있어 농구대잔치 시절 결승보다 어쩌면 더 승리가 절박할지 모른다.

KCC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포인트 가드 김태술을 영입하고 공익 근무를 마친 하승진이 복귀해 정상을 넘볼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부상으로 온전한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박경상, 김효범 등의 부상도 겹쳤다.

삼성은 지난 23일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46-100으로 참패를 당하는 등 난국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KCC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충희 스카이스포츠 해설위원은 "이런 하위권 팀들은 기량보다는 팀 사기의 문제가 더 큰 경우가 많다"며 "이번 맞대결에서 승리하면 분위기 반전을 통해 중위권 도약을 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두 팀은 필승의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병호기자

지난 7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전주 KCC와 서울 삼성의 경기. /연합뉴스

피겨 금메달리스트의 굴욕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사진)가 다음 달에 열리는 유럽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선수권대회 결과에 따라 유럽선수권대회에 나설 팀이 정해졌다"는 알렉산더 고르시코프 러시아연맹 회장의 말을 전하며 소트니코바가 출전 명단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다. 소트니코바는 러시아연맹 웹사이트에 올라온 후보선수 3명에는 포함됐다.

소트니코바는 소치 올림픽에서 판정 논란 속에 금메달을 획득한 뒤 올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와 2014-2015시즌 그랑프리 시리즈 등 주요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이번 유럽선수권대회 엔트리가 결정된 러시아선수권대회에는 발목 부상을 이유로 불참했다.

러시아는 국내 선수권대회에서 각각 1, 2, 4위에 오른 엘레나 라디오노바, 엘리자베타 툭타미셰바, 안나 포고릴라야를 유럽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대표로 선발했다.

3위인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15)는 연령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유럽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리프니츠카야는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9위에 머물러 출전이 무산됐다.

한편 내년 유럽선수권대회는 다음 달 26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다. /장병호기자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7년 약속 실천한 구로다의 선택

일본인 투수 구로다 히로키(39)는 샌디에이고가 제의한 1800만 달러(약 207억원)를 거절하고 친정 히로시마로 복귀했다. 그것도 연봉 4억 엔(36억원)짜리 계약이다. 200억 수표를 놓고 잠 못 이루고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팬과의 약속이 돈보다 중요했다.

구로다는 7년 전 팬과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교감을 경험했다. 1997년 입단할 때는 제구력이 신통치 않은 유망주였다. 그러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5년 째인 2001년부터 두 자리 승리를 따냈고 히로시마의 간판투수로 군림했다.

2006년 말 구로다가 미국 진출을 모색하자 팬은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싸울 것이다. 빛나는 미래의 그날까지 당신이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기꺼이 당신의 눈물이 되어 주겠다"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히로시마 구장에 내걸었다.

크게 감동받은 구로다는 "절대 국내의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지 않겠다"며 '평생 히로시마'를 선언했고 1년을 더 뛰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가면서도 그는 "히로시마는 나를 만들었다. 언젠가는 다시 히로시마로 돌아와 우승하겠다. 가장 좋았을 때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었다. 시간과 환경에 따라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태평양을 건넌 구로다는 '눈을 견디며 피어난 매화가 아름답다'는 좌우명 대로 살았다. 2년 동안 10승에 실패했지만 2010년부터 5년 연속 두 자리 승수를 따냈다. 절친이었던 클레이튼 커쇼가 인정할 정도로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투수로 성공했다.

그 절정의 순간 항상 그려왔던 꿈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히로시마 복귀 결단을 내려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다. 구로다는 "많이 고민한 끝에 야구 인생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프로야구를 시작한 히로시마를 택했다. 앞으로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그만이 7년 전 약속을 잊지 않았다. 어쩌면 팬이 구로다를 다시 히로시마로 부른 것이나 다름 없었다.

/OSEN 야구전문기자

프로배구 전적

29일

한국전력	3	0	LIG손해보험

프로농구 전적

29일

KCC	17	16	18	14	65
SK	19	17	19	15	70
삼성	9	20	15	18	62
하나외환	21	14	11	10	58